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6 June 2020
Vol.342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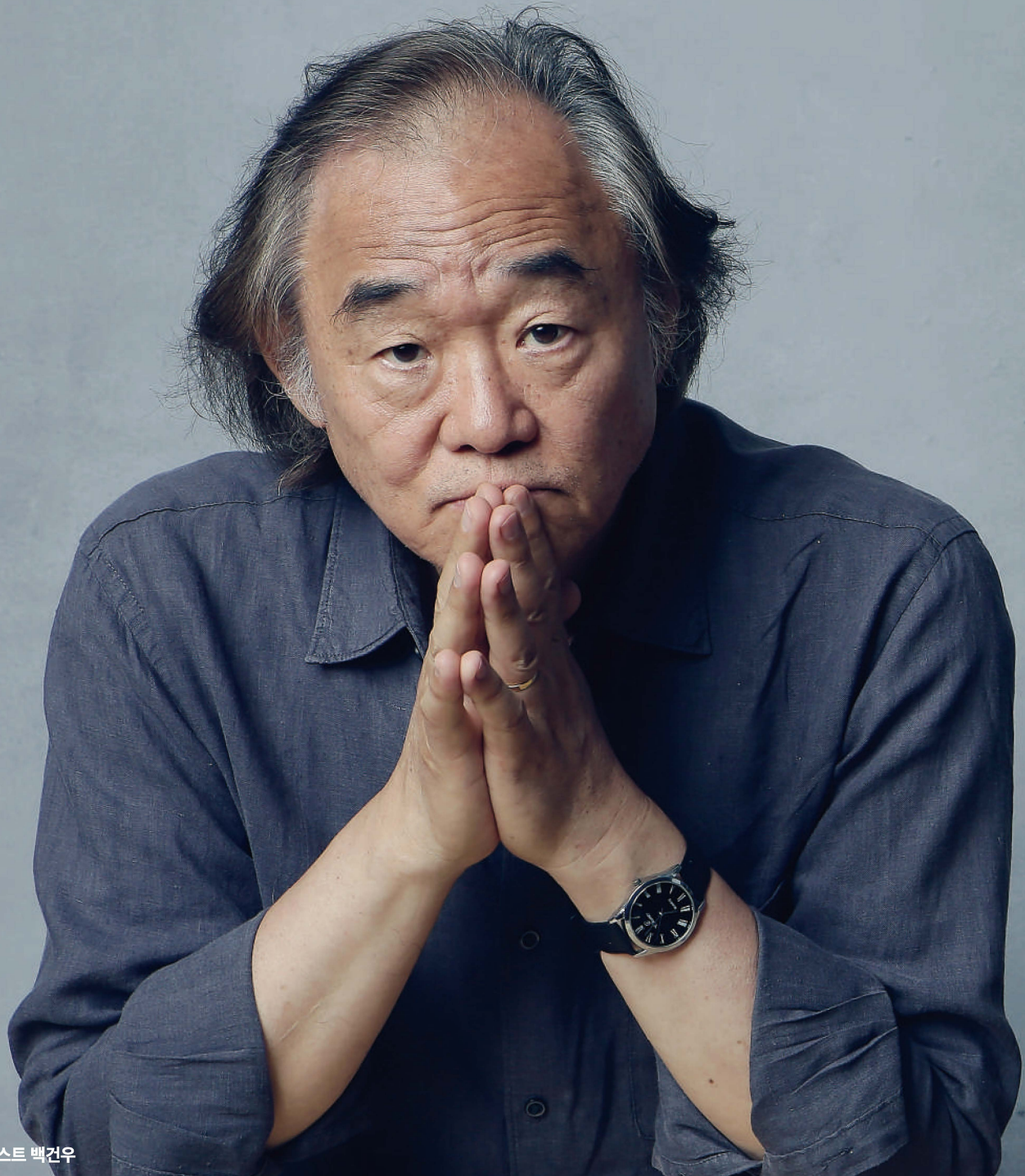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4회
정기연주회 '거장의 레제로'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

보름달

특집좌담

문화/예술의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전망하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부산시립합창단 제179회 정기연주회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공연

이기선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Dona Nobis Pacem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

- Choral Fantasy L.v.Beethoven
- Dona Nobis Pacem R.Vaughan Williams



소프라노 박미자



베이스 양희준



피아노 유지수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원주시립합창단, 여주시립합창단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이기선

2020. **6.26**(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전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6 (시립합창단), 607-6116 (정기회원)
할인 50% 임산부, 모범납세자,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다자녀가구 3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초/중/고/대/대학원생, 예술인패스 소지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제206회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기념
월드뮤직공명초청

화평음악회



지휘 김종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연주곡목

1부

- 보물섬

- 타악그룹 「공명」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전쟁과 평화〉- 위촉곡

2부 통해야, 놀자, 해바라기, 위드씨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화가 있는 날 전석 50% 할인]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c.or.kr 문의/051)607-6000

2020.6.26(금)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1층 10,000원 | 2층 5,000원

서틀버스운행(무료)

대연역출발: 대연지하철역5번출구유엔교차로방향100M7번가짜앞부산문화회관 출발: 월·금·공연1시간전/30분전(2회운행), 공연후1회운행

National
Theatre
Live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NT-LIVE
영국 연극계 화제작

왕관 뒤에 숨은 한 여성의 인간적인 면모와
강력한 군주의 모습

헬렌 미렌

H E L E N M I R R E N

THE AUDIENCE

디 오디언스

2020. 6. 27(토) 3: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20,000원

예매문의 /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051-607-6000



SONIA FRIEDMAN
PRODUCTIONS LIMITED



Supported using public funding by
ARTS COUNCIL
ENGLAND

BY

EXPERIENCE | HD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 영국 국립극장 제작 :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

제73회 음속도명품콘서트 - 시리즈 I 바로크시대

바이올린 김다미 With 조이오브스트링스

비발디 & 피아졸라 '사계'

음속도문화회관은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잠겼던 빗장을 제73회 명품콘서트로 열게 된다. 올해는 바로크 음악에서 후기 낭만파 등 고전적인 양식의 클래식 레퍼토리부터 현대음악, 그리고 우리 국악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변천사를 통해 다채로운 예술적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 선을 보이게 될 공연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비발디의 '사계'와 그 영향을 받은 피아졸라 '사계'를 만나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별히 이번 연주는 바로크 음악에 정통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성주 교수가 1997년 창단한 조이오브스트링스의 하모니가 사계의 극치를 더하게 된다. 청명하고 맑은 느낌의 비발디 사계와 섬세하고 격렬한 피아졸라의 사계가 코로나19로 굳게 닫힌 공연장과 마음의 문을 감동으로 열 수 있길 기대한다.



© Jino Park

2020.6.29.(월) 19:30 | 음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생활 속 거리두기
←한 칸 띄어 건너뛰기 좌석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속도명품콘서트 - 시리즈 II 고전시대 8.21.(금) 19:30

베토편 탄생 250주년 '첼리스트 양성원 &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 듀오

음속도명품콘서트 - 시리즈 III 낭만시대 9.26.(토) 16:00

'금난새 & 뉴월드 챔버' 그리그와 차이코프스키

음속도명품콘서트 - 시리즈 IV 현대시대 10.6.(화) 19:30

쇼스타코비치 No.5 & 거쉬인 '랩소디 인 블루'

區 문화회관 특별순회공연
부산시립무용단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좌석은 생활속 거리두기를 적용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날 잡아봐라~



2020.

6. 16 (화) 19: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6. 19 (금) 19: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6. 25 (목) 19: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 區 문화회관 순회공연은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區 문화회관들과 함께 만든 공연입니다.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무료입장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2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CONTENTS

6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June 2020 Vol.342

2020년 6월호 통권 342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0년 5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08 Cover Story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4회 정기연주회
거장의 레제로

12 Column

100년 전 수학여행

14 Poem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⑩
보름달

16 특집좌담

문화/예술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전망하다

28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오래된 아파트에서 당신을 만나다 '갤러리 수정'

30 Academy Class

아티스틱하고 판타스틱한 근대미술사의 이야기들

32 Preview

39 Issue

부산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재개관

42 Review

44 Program Guide

53 New Book

54 BSCC News

60 Column

극장장의 손 편지 ⑬

SUN	MON	TUE	W
	1	2	3
7	8	9	10
14	15	16	17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팬레터' 15:00 대 8만8천원 6만6천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아지무스오페라단 기획공연 '오페라 갈라콘서트' 19:30 중 초대 / (사)아지무스오페라단(010-8520-4649) 이라희 바이올린 독주회 17:00 참 전석 1만원 / 갈라뮤직(747-3468)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 19:30 중 전석 5천원 / 부산시립
21	22	23	24
박지혜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17:00 참 전석 2만원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020년 제29회 부산무용제 19:00 [무관객 공연] 중 (사)부산무용협회(632-5116)	제103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 19:30 대 10만원·7만원·3만원 동국예술기획(010-4762-4333) 2020년 제29회 부산무용제 19:00 [무관객 공연] 중 (사)부산무용협회(632-5116)	제103회 한국의 명인명무 대 10만원·7만원·3만원 동국예술기획(010-4762-4333) 2020년 제29회 부산무용제 중 (사)부산무용협회(632-5116) 양상블 더 블로썸의 열세 번 참 초대 / 양상블 더 블로썸
28	29	30	
박승훈 트럼펫 독주회 'Baroque or Modern' 18:00 참 초대 / 박승훈(010-2332-3627) 제6회 부산국제폴킴퍼연습 13:00 소 코리아뉴에이지댄스협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공연 '열씨구樂' [단체관람] 참 부산시립예술단(607-3110)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3	4	5	6
		부산시민회관 시민뜨락축제 '골든에이지밴드, 잠바 OJ 왓셋, 김민규 트리오' 12:00 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0	11	12	13
	김혜선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첼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팬레터' 19:30 대 8만8천원-6만6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민회관 시민뜨락축제 'KLAON 클라온, 조아 합창단' 12:20 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팬레터' 15:00, 19:00 대 8만8천원-6만6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7	18	19	20
음악회 '미완성 음악회' 교향악단(607-3111~3)	(사)부산네오피엘모닉오케스트라 제65회 정기연주회 '영웅, 운명&교향곡 7번' 19:30 대 5만원-3만원/부산네오피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중 초대/오에은(010-7713-9954)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4회 정기연주회 '거장의 레제로'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4회 정기연주회 '거장의 레제로' 17:0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4	25	26	27
전 '전무후무' 19:30 (762-4333) 제 19:00 [무관객 공연] (2-5116) 번째 정기연주회 19:30 영(010-3284-9428)	6.25 전쟁 제70주년 기념식 09:00 대 부산광역시(888-1912) 소프라노 오에은 귀국 독창회 20:00 중 초대/오에은(010-7713-9954) The Haus Kammer ensemble 창단연주회 19:30 첼 무료/이환석(010-6284-6357)	부산시립합창단 제179회 정기연주회 '이기선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19:3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6회 정기연주회 '화평음악회' 20:00 중 1만원-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베토벤의 계보' 19:30 첼 초대/K.P.S(010-7742-0556)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가 있는 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19:00 소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NT-Live_디 오디언스' 15: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트리오 피아체 정기연주회 '대공' 19:30 첼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제6회 부산국제폴렘피연습 13:00 소 코리아뉴에이지댄스협회

문
영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제24회 부산문화제
6월 8일(월)-6월 13일(토)
화장 박국영 010-2557-6277
사무국장 유선경 010-2870-0505

국제 우수작가 특별 초대전
6월 16일(화)-6월 20일(토)
(사)한국현대미술협회 사무국 644-0005

부산문화회관 공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앨런 플레처 회고전 '멜컴 투 마이 스튜디오'
4월 21일(화)-6월 21일(일) 1, 2층 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630-5235
• 관람시간: 오전 10:00-오후 6:00(금-토요일은 오후 7:00까지, 종료 1시간 전 입장마감)
• 관람료: 일반 9천원, 동구민, 예술학과 학생, 성인단체 4천5백원, 초중고생, 경로우대 4천원, 미취학아동 2천원, 유아, 장애인 무료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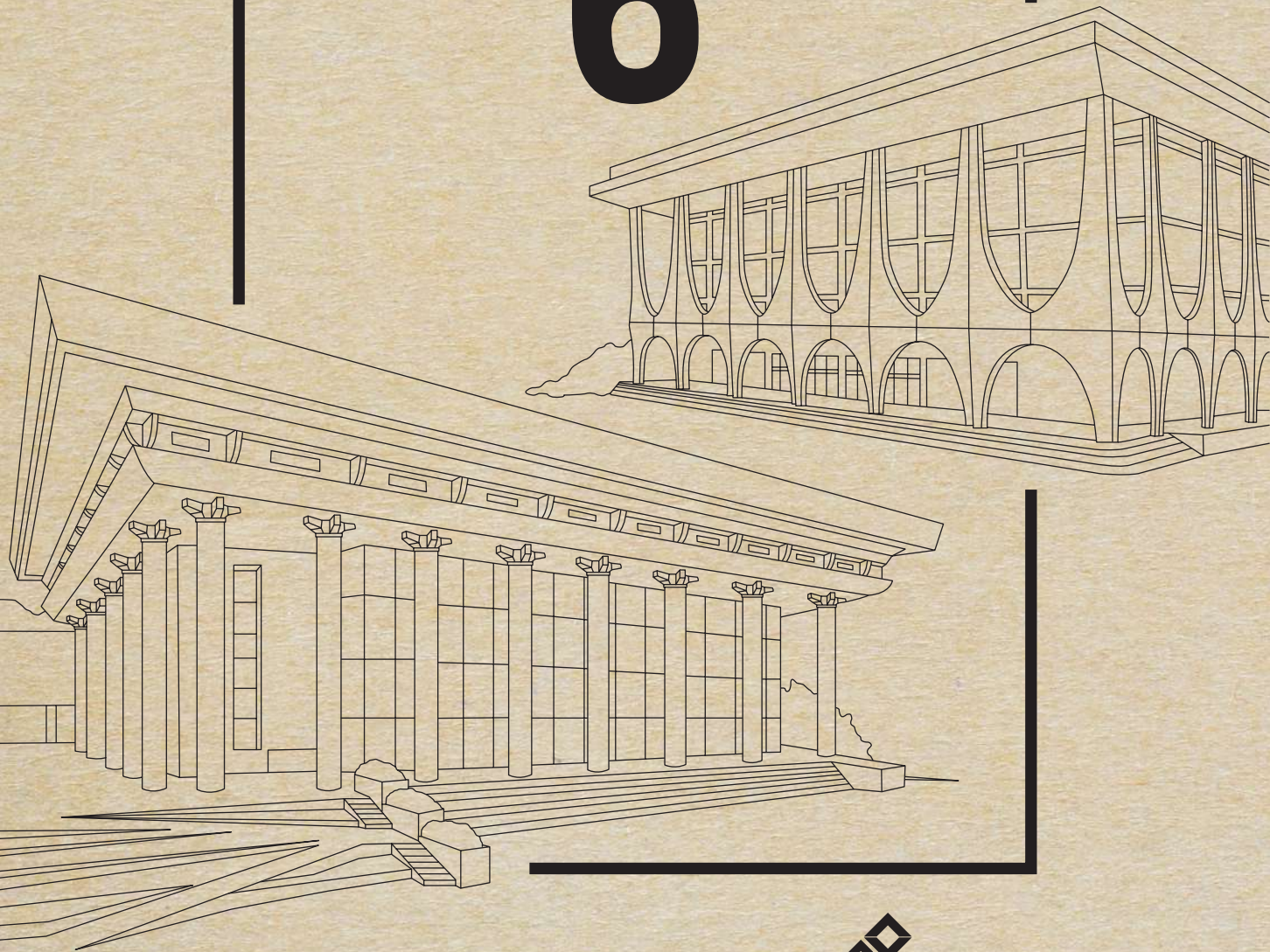
BSCC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2020 June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 월간 공연 & 전시 일정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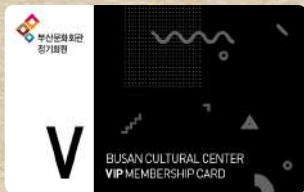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116~7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Cover Story
+

Kun-Woo Paik

BPO meets
Kun-Woo Paik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4회 정기연주회

거장의 레제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잠시 활동을 멈췄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6월 19일과 20일 제564회 정기연주회로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재개한다. 특히 5개월만에 갖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가 협연자로 7년 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라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

피아니스트로서의 행보를 시작한 지 올해로 64년, 세계적인 권위의 콩쿠르에서 수차례 수상하며 거장의 반열에 오른 백건우는 일흔을 넘긴 나이에도 매일 연습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곡에 도전하고 있다. 라벨의 뛰어난 해석자로 입신한 후 바흐에서 슈톡하우젠, 부조니에서 스크랴빈, 리스트에서 메시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동시에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깊이를 음악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1956년 열 살의 나이에 해군교향악단(현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로 데뷔한 백건우는 이듬해 자신의 이름을 건 연주회에서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을 한국초연으로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다. 15세에 콩쿠르 참가를 위해 처음 미국으로 건너가, 이후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러시아 피아니즘의 계보를 잇고 있는 로지나 레빈을 사사했다. 1969년 부조니 국제콩쿠르에서 ‘장래가 기대되는 피아니스트’라는 심사평과 함께 특별상을 수상한 백건우는 1971년 뉴욕 나움부르크 콩쿠르에서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며 같은 해 뉴욕 링컨센터 엘리스 툴리 홀에서 독주회를 개최, 이듬해인 1972년에는 링컨센터에서 라벨의 피아노 독주

곡 전곡을 연주하며 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후 유럽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 세계 유명 공연장에서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아갔던 그는 1992년 1월, 스크랴빈 피아노 작품집으로 디아파종상을 수상한 후 1993년,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전곡집으로 디아파종상을 비롯한 프랑스 3대 음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백건우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2000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기념음악회에서 재일 북한국적의 지휘자 김홍재와 함께 부조니를 협연했으며, 프로코피예프 사망 50주년이 되는 2003년에는 베를린, 밀라노, 부다페스트, 베이징, 도쿄, 서울, 니스, 세비야 등에서 연주했다.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파리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가 하면 펜데레츠키, 강석희 등 현존 작곡가들의 작품을 초연하는 뜻 깊은 무대에 초청받기도 했다.

백건우는 한국에서도 꾸준히 협연과 독주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김선욱, 김태형 등 후배들과 함께한 4 Piano Concert, 리스트 탄생 200주년 리사이틀 같은 음악성 높은 연주는 물론 2011년과 2013년에는 섬마을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

2020. 6. 19^금 오후 7:30
6. 20^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가는 음악회 '섬마을 콘서트' 투어로 큰 화제를 모았다. 2014년 7월 24일에는 제주도 제주항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세월호 사고 100일 추모공연-백건우의 영혼을 위한 소나타'로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다. 2016년에는 60년 연주인생의 동반자였던 관객들을 향한 감사의 뜻을 담아, 청중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공모로 선발하여 연주하는 리사이틀 '백건우의 선물'을 선보였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이 공연은 제2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제4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작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며 연주에 전념하고 있는 백건우는 예술적 업적을 인정받아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 기사훈장'을, 국내 호암재단으로부터 '호암 예술상'을 수여받았으며, 2017년에는 국가 브랜드대상 예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백건우와 부산시향이 들려주는 베토벤 음악의 성찬

이번 무대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특별히 베토벤의 작품들로 꾸며진다. 베토벤 초기 작품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을 시작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중 가장 규모가 작고 재기발랄한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청년 베토벤의 기발하고 산뜻한 아이디어로 가득한 교향곡 제1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서곡을 제외한 두 곡은 평소에 자주 연주되는 곡이 아닌데다 흔히 베토벤의 초상에서 떠올리게 되는 악성의 무겁고 진중한 모습과는 조금 다른, 밝고 유쾌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밖에 아름답고 우아할 뿐만 아니라, 격정적인 리듬이 폭발하듯 나타나는 역동성을 지닌 멕시코 작곡가 마르케스의 춤곡 '단손 제2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본 공연에 앞서 6월 1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미완성음악회'를 마련한다. 이번 무대는 정기연주회에 앞서 갖는 공개 리허설 무대로, 최수열 예술감독이 진행하는 베토벤 교향곡 제1번의 생생한 리허설 현장을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OO-YEOL CHOI, ARTISTIC DIRECTOR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BPO OPEN REHEARSAL CONCERT

2020. **6.17** Wed 7:30 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Medium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베토벤 • 교향곡 제1번
L. v. Beethoven • Symphony No.1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116~7(정기회원)

할인 60% ▶ 정기회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40%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 본공연 관람 패키지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 (2회 운행)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00년 전 수학여행

—
채영희 본지 편집위원
부경대학교 국문과 교수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자유롭게 누리던 공간적 거리를 자발적으로 축소하여 산 지 수 개월이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든 갈 수 있던 세상에서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보니 그동안 누린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는다.

얼마 전 기장군 철마에 거주하는 분들의 생활사를 채록하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갔었고 요즘도 그 당시 철마초등학교를 다녔던 일본인들이 가끔 그때 일을 기억하며 학교를 방문하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930년대 어린 학생들이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갔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지만 몇 명의 학생들이 어디를 거쳐 일본으로 여행 간 것인지 궁금해져서 오래된 신문들을 뒤적이게 되었다.

예전 신문들이 디지털 자료로 정리된 덕분에 1901년 7월 26일자 황성신문에 경성의 40여 명의 학생이 만주로 수학여행 갔다는 기

사를 만날 수 있었다. 당시 40여 명의 학생들이 만주 지방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30명은 관비로, 10여 명은 자비로 간다는 기록이 보인다. 여행 비용은 한 달에 백 원, 4개월에 4백 원이라는 말도 덧붙여 있었다. 당시의 화폐로 짐작해 보면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다. 1909년 7월 27일 자 황성신문에는 청년들에게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청국으로 여행을 가서 동정호와 만리장성을 보고 대국의 기개와 용기를 얻어오라고 권하는 사설도 있었다. 조선 학생들이 일본과 만주로 수학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조선과 청국으로 수학여행을 왔다는 기사들도 보인다. 황성신문 1909년 4월 1일 자에는 일본 중학생 26여 명과 교직원 10명이 경성에 들어와 3일간 있다가 인천과 부산을 거쳐 귀국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26일 자 기사에는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청국 안동현으로 수학여행 간다는 기사도 있다.



일본은 독일의 참모제도를 일찌감치 배워 철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철도를 통한 병력 이동을 목적으로 한반도의 철도 건설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일본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할 조류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일찍부터 조선 땅을 측량하기 시작했다. 조선은 힘없이 철도권을 미국과 프랑스에 넘겼고 이를 다시 일본이 차지하였다. 그들은 대륙으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꿈꾸는 섬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머물러 있었다. 서구인들이 명명한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에는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으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문명화에 낙후되고 정체된 야만의 나라 조선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었다.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고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이때 철도국의 일본인 직원은 4,920명, 조선인 직원은 643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기차 싹은 1등석이 1원 50전(현재 40,000원), 2등석 80전(21,000원), 3등석이 40전(10,000원)이었으며 여인숙에서의 한 끼 식사비가 5전이었으니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쉽게 탈 수 있는 기차 운임은 아니다. 1916년 조선총독부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세입은 9,848,998원이었는데 그중 지세가 9,899,377원(16.5%), 관세가 3,721,762원(6.2%)이었다. 그중 철도 수입은 10,149,039원이었다고 되어 있다. 이 당시 철도작업비, 건설비, 개량비로 16,080,455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철도 부문은 적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1931년 자료에는 전체 세입이 238,572,875원이었는데, 1위가 철도수입 74,846,154원(31.4%), 2위가 전매수입 51,038,190원(21.4%)이라고 되어 있다. 이 자료로 보면 일본은 철도 운송비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일본, 조선, 만주로의 여행을 권장했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비용이 어느 정도 이득을 준 것으로 짐작한다.

일본은 초기에 교사 사절단을 만들어 호화롭게 일본 사찰을 먼저 하게 한 후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비용을 충당하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활성화하였다. 그런데 당시 신문 여러 곳에 수학여행의 폐단을 지적하는 글들이 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기사도 보이고, 수학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들의 힘겨움을 호소하는 글도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차별을 걱정하는 글도 있다. 아마도 당시 수학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척 버거운 일이었을 것이다.

수학여행이라는 제도를 처음 만들어 낸 것은 일본이다. 이 제도는 겉으로는 신문물의 관광과 현장 교육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적 소비 권장과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일본 학생들에게는 조선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조선 학생들에게는 일본의 우월함과 식민 지배의 당연함을 자랑하고 싶어 했다. 일본 학생들은 교토에서 출발해 부산, 경주를 거쳐 경성, 평양 그리고 만주 지역까지 13박 14일을 여행했다고 되어 있다. 당시 일본 학생들의 수학여행기에는 조선은 지배의 대상, 차별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고착화하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일본은 조선 학생들에게 일본의 발전한 제국의 위상을 체험하게 한다는 명목 아래 조선 학생들에게 패배감을 체감하게 하자는 전략이었다. 그들은 조선 학생들의 독립 의지를 꺾기 위해 조선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권장했다. 처음 일본을 접한 조선 학생들의 수학여행 후기를 보면 ‘도쿄는 거대하고, 교토는 아름답고, 오사카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의도와 달리 1921년에서 1928년 사이 404건의 조선 학생 동맹휴학 사건이 일어난다. 조선 학생에게 일본이나 만주로의 수학여행은 오히려 자국의 현실을 깨닫게 하여 조선의 발전에 대한 열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의 차별을 확인하는 장이 된 것이다. 수학여행의 차별로 인해 발생한 조선의 학생운동은 조선의 독립을 향한 항일운동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읽어낸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 행보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려운 시기의 조선 학생들이 자신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 보였던 웅장한 기개를 우리는 기억한다. 지금의 우리도 그들처럼 슬기롭게 이 위기를 잘 이겨낸다면 이제까지 없던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계음 하나 없는 야만의 나라라고 비아냥거리던 서구인들의 실상을 알게 되었으며 새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그 암울한 시기 분노 가득한 채로 수학여행 갔던 그분들은 지금 우리 젊은 이들이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 가득한 채로 오대양과 육대륙을 좁다고 하면서 당당히 누비고 있음을 보시고 아마도 기뻐하실 것이다.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11

보름달



시인, 본지 편집위원장 **동길산**
✉ dgs1116@hanmail.net

이슬까지 둥글어지려는 눈물까지 둥글어지려는

달은 수레바퀴
바퀴가 밀리지 말라고
밀려서 산 너머 굴러가지 말라고
실한 돌덩이를 받친다
달은 멈추고
내 어딘가에 돌덩이를 받친 듯
나도 멈추어
가장 둥글어지려는 달밤
이슬까지 둥글어지려는
눈물까지 둥글어지려는

동길산 詩 ‘보름달’

66

보름달은 어질어서 구름에 가려도 둥글고

보름달 달빛은 어질어서 산산조각 부서져도 둥글다

둥근 눈빛으로 나를 보는 당신. 당신이 이 세상 가장 어질다

99

지금은 깊은 밤. 무엇이 나를 깨웠을까. 둘러본다. 방은 고요하다. 마당을 내다본다. 풀벌레 소리가 나를 깨웠을까. 그러진 않을 것이다. 신경이 무딘 탓도 있지만 산골생활 삼십 년, 익을 대로 익어 자장가 같은 소리에 잠이 깬 건 분명 아니다.

아, 저것! 깊은 밤 나를 깨운 건 소리가 아니라 빛이었다. 정확하게는 빛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보름달 달빛이 마당에 부딪혀 짹그랑짹그랑 부서지면서 갈래갈래 조각난 달빛 하나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종종 그랬다.

이왕 달아난 잠, 마당에 나선다. 초저녁 어둑할 무렵만 해도 막 뜨는 게 싫더니 그새 밤하늘 가장 높은 자리에 가 있다. 가장 멀리 보고 가장 넓게 보는 데서 금가루 은가루 달빛을 가장 멀리 뿌리고 가장 넓게 뿌린다.

양팔 벌리며 숨을 들이쉬다. 금가루 은가루 달빛이 내 몸에 달라붙고 내 안에 빨려든다. 살아오면서 내 안팎이 이토록 빛나던 적이 있었을까. 내가 나를 보며 내 안팎이 빛난다고 생각한 적이 있긴 있었을까.

보름달 뜨는 날은 한 달에 하루. 그렇긴 해도 보름달 보는 날은 한 해 사나흘이나 될까 싶다. 비와서 못 보고 다른 데 정신 팔려서 못 보고 음력 보름은 그렇게 보내기 일쑤였다. 한 해 사나흘이나 될까 싶은 오늘,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금가루 은가루 내 안팎.

달과 눈을 맞춘다. 그리고 보면 어진 것은 둥글다. 보름달은 어질어서 구름에 가려도 둥글고 보름달 달빛은 어질어서 산산조각 부서져도 둥글다. 둥근 눈빛으로 나를 보는 당신. 당신이 이 세상 가장 어질다.

문화/예술의 뉴 노멀 시대, New Normal

포스트 코로나를 전망하다

2020. 5. 14^(목)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회의실

전례 없던 강력한 전염병의 공세가 거세다. 정치, 경제, 교육, 보건,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흐름이 형성되고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 이전(BC:Before Corona)과 이후(AC:After Corona)로 양분될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4세기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르네상스를 앞당겼던 흑사병, 17세기 대항해 시대를 연 천연두, 제1차 세계대전 무렵 평화를 가져온 독감 유행처럼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기는 거꾸로 사회 변화를 촉발시키기도 한다. 이번 좌담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사회, 문화, 예술분야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변화의 바람을 전망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이번호에서는 문화전반과 예술을 중심으로, 이어 다음호에서는 공공 공간 운영의 미래를 조망해 본다.

참석자 명단

이지훈(사회, 필로아트랩 대표) 남승우(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승욱(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이용관(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이준영(부산일보 논설위원) 이청산(한국민예총 이사장)
정상도(국제신문 수석 논설위원) 조정윤(부산문화재단 예술인간접지원단장)



이지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말이 지금처럼 실감나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공연예술계는 심각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역시 ‘생명’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생명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재편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인간중심의 생명 개념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 전체를 고려하는 생명 개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이번 사태가 로컬과 글로벌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문제를 던져주었다고 보는데요, 특히 저는 ‘자급자족’이라는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례로 프랑스에서 코로나 사태가 악화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국 내에 방호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호품 수입을 기다리는 동안 의료진이 감염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보더라도 식량이나 방호품 등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의 자급자족의 역량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은 지역의 다양성, 생명 종의 다양성과 연결되는데요, 문화예술분야에서도 해외연주자의 공연취소가 잇따르면서 지역예술가 육성과 지역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로컬과 글로벌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급자족과 상호부조의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로컬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 문화, 원조 등 비경제적 성격의 글로벌 연대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1월 제네바에서는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주제가 ‘인터네이션’이었는데, 이것은 획일적인 ‘국제주의’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자급자족과 상호유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치 기준의 변동, 문화예술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주최자로서 오늘 좌담회의 취지와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당황과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느끼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사태를 돌아보고 성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왕이면 부산인의 시각으로 문화 분야를 전망해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부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패넌들을 모셨습니다. 저로서는 듣는 자리인 만큼, 가급적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제 의견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생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념을 좁혀서 우선 ‘약자’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특징이었던 경쟁, 승자독식의 세상에서 약자들이 마냥 소외되어 왔는데요, 그들을 먼저 배려하고 챙기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이든 문화적인 측면이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이 한층 명료해졌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런 고민들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앞당겨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역시도 앞당겨졌습니다.

일례로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예술인 고용보험이 미흡한 상태로라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전국민의 기본소득에 대해서조차도 지금까지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공감대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많은 부분들이 이전의 관행과 다름없이 변화되지 않고 이 상황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성찰이 많이 필요합니다. 집단성찰을 통해 문제들을 살피고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세기 흑사병이 르네상스를 가져왔듯이 말입니다.

정상도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사태는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한 번의 충격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이 아니란 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스페인 독감도 그 기간만 8개월, 그것도 1차 때보다 2차 때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충격이 가진 함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올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면 사회 안전망으로 커버될 수 없는 사람들,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전에는 일상이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지요. 약자의 대상이 타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체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가 가지는 큰 함의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승욱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전염병을 극복했다는 일종의 오만에 빠져 있었는데 중세시대이나 있을 법한 역병을 다시 겪으면서 더욱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더 나아가 기존의 문화양식, 삶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세기 수천만 명이 희생됐던 스페인 독감을 겪으면서도 인류는 지금과 같이 이동성과 집합성에 기초한 삶의 양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사회안전망과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해줬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공공의료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고 유럽국가 중에서도 특히 사망자 비율이 높은 영국의 경우 그들이 자랑했던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면

이용관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같은 국가 내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안녕을 지키는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논의를 확장하면 1980년대 이후 복지와 공공의 역할을 끊임없이 축소해온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지구적 성찰을 촉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청산 인류 역사를 볼 때 세계화라는 과정에서 보면 제1차 세계화는 프랑스 시민혁명, 영국 산업혁명 등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지금 현재 IT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화된 것이 제2차적인 세계화라고 보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대 전환점을 맞았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동일한 경험을 겪고 있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다른 배를 탔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코로나20, 코로나21 등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올 것인데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과학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이 가지는 기본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술가들 역시 그냥 ‘어렵다’ ‘힘들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과연 예술이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준영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며 잠시 쿠바를 떠올렸습니다. 쿠바는 지속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최빈국이지만 그 나라 청년들은 경제성장보다도 오히려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즐기는 등 예술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그들과 비교해 경쟁력이나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훨씬 앞서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직장 하나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과연 성장과 발전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자

본축적이라면 기본소득에 의해, 적어도 돈에 의해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단발성이긴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제활성화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아 이 사회가 이렇게 분배를 해도 되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라고 보는데요,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엄청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경제를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는 예술인들이 더욱 할 일이 많아지고 문화예술 자체가 사회의 주된 흐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에 인간의 노동이 부가가치를 만들어왔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노동의 분야가 축소되면서 이제는 인간이 예술로 어떤 가치를 만드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변화를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앞당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조정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각종 언론 타이틀에 ‘상상 초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했습니다. 더불어 봉쇄, 사회적 거리, 자가격리 등 새로운 용어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용어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지금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우리나라와 세계 다른 나라를 비교하셨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사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서양 사회는 오히려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잘못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변화관리, 체인지 매니지먼트(Change Management)인데요, 이것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화자찬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화관리는 2017년도에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언급됐는데요, 변화관리의 핵심 실행 포인트 5가지 중 두 번째 항목인 ‘위기의식의 전략적 활용’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훌륭한 대처능

력을 보이면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로 돌아가서는 원래 예술의 특성이 대면(Contact) 문화였는데 코로나 사태 후에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비대면(Untact)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어떻게 될까, 제가 예측하기에는 컬처택(Culturetact)이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가져왔던 대면 예술들이 공연예술의 기본이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홈 콘서트 등 다양한 시도의 공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비대면으로 남든, 대면으로 돌아가든 분명히 문화적인 새로운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리라 봅니다.

남송우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에 대해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첫 번째는 관계의 문제인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등 그런 모든 관계의 입장에서 그동안 인간들이 저질러놓은 엄청난 문제들의 민낯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질, 주종, 노사, 국가 등 이러한 다양한 관계성을 새롭게 정립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없으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실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 동안에도 일부 국가, 일부 계층이 누리고 있는 부의 편중은 많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죽어가는 지구촌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 이 같은 경우 전체 생산량만 잘 분배해도 모두 살릴 수 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생명, 약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가난한 약자이기에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을 눈 앞에 두고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성찰이 없는 한 코로나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염병일 뿐입니다. 이번 사태는 실제 삶에 있어서 많은 차별이 편중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인지, 또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제대로 풀지 못했던 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에 인간의 오만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자기성찰이 있어야만 코로나 이후에 대두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청산 환경이라는 말 자체도 어쩌면 인간의 오만이 드러나는 단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이 살고 있는데 인간만이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의미에서 환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자신도 바이러스 덩어리라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몸에 많은 바이러스, 즉 항체를 심어놓았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태평양의 한 섬에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건너간 신부가 옮긴 바이러스로 그 섬의 원주민들이 다 죽었다는.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 많은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람 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보며 저 사람이 혹시 확진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상황, 이것은 서로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방역의 성공 원인 중 하나가 발달된 IT를 통한 감시, 통제라고 프랑스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동선 하나하나가 정부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지금은 위기상황인데다 현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있기에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 지금의 정부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정권이었다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지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우선인지 고민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욱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중세시대 전염병이 상하수도 설비와 같은 도시의 대규모 공중위생 인프라를 만들었



남송우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이청산 한국민예총 이사장

고 20세기 초반 경제 대공황은 자유시장을 규제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서구의 복지국가모델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앞서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40~50년 동안 우리 사회도 시장과 경쟁, 개발과 효율만을 쫓아 왔다면 이제 공공과 연대, 생태와 복지 같은 중요한 가치와 과제를 더 이상 뒷전으로 미뤄 둘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90년대 초반 처음 유럽 배낭여행을 다니며 그 사회를 동경하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어느 선진국보다 효과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관 코로나 사태 초기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 수준이 높은 유럽의 대처에 거는 기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가, 아시아가 대처를 더욱 잘했는데요, 특히 물리적인 대처도 훌륭했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방향성이라 할까, 개방성, 투명성, 민주주의 등이 상호작용하여 큰 가치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들이 앞으로 연대와 공존을 이야기할 때 좋은 시사점이 되겠지요. 한편, 지금까지의 유럽 상황을 보면 체계도 없고 혼란스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분명 유럽만이 가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재난안전기금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문화분야만 놓고 보면 영국의 경우, 거의 기준 없이 퍼주는 것 같은 미국과는 다르게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금을 주

고 있습니다. 기간도 일단 3개월 동안으로 정하고, 금액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유럽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지훈 요즘 <데카메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데카메론>은 아시타시피 1350년경 페스트가 유행했을 때 시골로 피난 온 10명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근대 소설의 시초라고 말합니다. 이 소설은 기존의 가치를 풍자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플레랑스', 관용이라는 개념도 여기에 최초로 등장하는데요, 여러모로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대면접촉이 핵심인 예술이 어떤 변화를 맞을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용관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에 대한 주체적인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비대면 예술이 하나의 흐름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의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그 경계들이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비영리예술과 영리예술의 경계, 공공예술과 시장예술의 경계가 사실 모호한 측면이 많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그렇고요. 비대면의 경우라면 가령 조성진이나 <오페라의 유령> 같은, 시장에서 상품성이 검증된 공연들은 시장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경쟁력도 있겠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비영리예술이라 했던 대부분의 공연들은 그렇게 해서



이지훈 필로아트랩 대표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예술인긴급지원단장

는 더욱 경쟁력이 생길 수 없고 그나마 정부 지원금으로 버텼던 민간의 예술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로 말할 수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언제나 위기였죠. 특히 공연예술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예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긴급지원금 또는 재난안전자금의 10%, 아니 1%만 떼어 예술분야에 지원을 한다면 위기탈출이 가능하다고 보자는 것이죠. 공공부분의 역할이 강한 곳이 유럽인데요. 가령 영국의 국립극장은 한국의 국립극장보다 예산이 세 배나 많습니다. 그것은 많은 민간 예술인을 수용하여 공공극장에서 함께 작업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앞으로 이런 주장이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지훈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연예술의 기초부터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된 거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영상, 비대면, 온라인유통 등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에 파생되는 강자독식의 문제라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로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넷플릭스를 들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거대 기획사와 방송이 앞으로의 영상유통을 독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예술, 소수, 다양성문화를 표방한 영상들은 상대적으로 관객층이 적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승욱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금과 같은 예술양식을 발전시켜왔습니다. 물론 예술분야에서도 비대면 매체나 형식이 증가하겠지만 단기간에 현장성에 기반을 둔 기존의 예술형식이 사라지거나 다른 매체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화나 TV와 같은 기술적으로 진보한 매체가 나왔지만 연극이나 공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재난을 겪으면서 서구 국가들은 문명에 대한 성찰, 인류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대규모 예술축제를 만들고 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투자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와 국가재정의 위기가 확대되면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축소되는 문제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에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법률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이고 매우 반길만한 일입니다. 사회적 약자니까 예술가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를 넘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옹호와 인식의 확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청산 우선 민예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배고픈 예술가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늘상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지금은 예술의 근본적인 가치라는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예술은 항상 두 가지가 충돌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 하나는 인간을 지구의 한 일원이라고 보는 가치와 지구가 인간의 것이라고 보는 가치의 충돌인데 이 단절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적어도 연주자가 50년 정도 대금을 불었다면 그 대금 소리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고 해야 예술을 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 예술은 그런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명을 사랑하는 시를 쓴다면 그 시 한 구절로 인해 당뇨병 환자도 낮고 암환자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예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기도로 앓은병이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예술 역시 이것을 가능토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적어도 예술을 한다고 하면 내가 그런 가치있는 예술, 본질적인 예술을 하고 있는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술적 가치의 본질적 회복이 새로운 가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정윤 우리가 흔히 쓰는 컨택, 언택은 거리적 개념으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컬쳐택 역시 문화예술을 통한 심리적 거리 좁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이 가지는 힘은 바로 치유의 힘인데요, 10여 년 전부터 힐링, 치유의 가치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당장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의 대부분은 ‘힐링콘서트’, ‘치유콘서트’ 등의 이름이 붙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가치는 앞으로 더욱 더 이야기될 것이며 공공지원의 정당성 또한 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문화정책 면에 있어서 가치 흐름을 보면 예전에는 심미적 가치, 아름다움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었는데 이것이 1990년대 들어 경제적 가치, 2000년대 들어서는 교육의 가치,

2010년대 들어서는 도시재생의 가치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문화가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갈 것이라고 봅니다.

정상도 사회적 활동이 중단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동안 2,500개 공연예술행위가 중단되고 52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00명이 들어올 공연장에 30~40명밖에 입장을 할 수 없으니 공연은 공연대로, 또 미술은 미술대로 아우성을 칩니다. 한편으로는 전시회를 열 수 없어 온라인으로 전시를 진행했더니 유명작가의 작품은 판매가 되는데 새로운 작품은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작품들이 온라인 전시에 맞춰진 작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추세에 맞춰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과 현실적인 문제의 균형이 배제되어 있으니 그 접점을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 이것은 또 무엇과 관련있느냐, 여기서 지역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사태 초기에는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 밖에 없었지만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그것이 전국으로 전파되는 사례를 봅니다. 예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예술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역문화 대책에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이용관 문화시설 운영자로서도 고민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하는 것인데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문화적 배려, 비영리 예술인 특히 지역예술과의 적극적인 작업과 시민과의 매개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문가 집단만의 판단에 의해, 많은 시민이 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따라 운영이 되었다면 이제 좀 다른 방식 즉, 시민과 지역예술인들의 운영참여 확대

도 요구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방법에서도 진화가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동안 운영해온 방식에 대해 이 기회에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도 앞에서도 승자독식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유튜브를 통해 방구석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5,000만 명이 접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림의 떡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온라인 강의 이야기도 잠시 나왔는데 이번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학교 온라인 수업에 참관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위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일타강사의 온라인 강의에 익숙한 학부모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은 너무 서툴러 보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명하다, 수준이 높다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이 온라인으로 확장된다면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청산 그러면서도 예술의 본질을 보면 현장성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대 위 배우와 관객과의 소통은 온라인상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당판을 일레로 들면, 둥글게 펼쳐진 마당에서 말뚝이가 춤을 춘다 하면 관객이 말뚝이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뚝이를 보고 말뚝이 너머에 그 말뚝이를 보는 다른 관객들의 표정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울고 웃는 그 자체도 하나의 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현장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숨소리, 타인의 반응 등 이 모든 것이 만들어져 또 하나의 판이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 관객 수에 의한 평가에 대해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양적인 평가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문화예술 향유자들을 위해 관객이 적더라도 필요한 공연을 무대에 올려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관객 수만 생각하고 인기 공연만 가져온다면 지금 이런 고민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게 기관장들이 가져야 할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관 저 역시 예술의 현장성을 굳게 믿고 있고 공연예술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이 앞으로는 더 자주 나타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현장성을 강조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 상황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리라는 전제를 했을 때인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럴 경우에도 면밀하게 대비해야 하겠지요. 지역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유니크한 콘텐츠 개발도 그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승욱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등과 같이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폐쇄와 같은 상황이 되면 사실상 공연장에서 할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상당 기간 시설폐쇄와 같은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문은 열지만 활동이 위축되는 생활방역을 오가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온라인 활동과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강화하는 것이 분명 필요하겠지만 활동 목표나 내용의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성이라는 가치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공 문화공간들도 수익성에 대한 압박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대규모 집객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면 오히려 수익성에 연연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시민들이, 특히 이 사태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라도 찾아가는 예술 활동,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야외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 등과 같은 것들도 이런 관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영상과 부산문화회관의 영상 조회 수는 분명 다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획력 부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유튜브 영



정상도 국제신문 수석 논설위원



이승욱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상을 보면 브로드웨이 배우 한 명이 나와서 1인 뮤지컬 제작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게 조회 수가 150만 명이 넘습니다. 텅달아 인스타그램, 트위터 팔로워 수도 늘면서 이 배우의 브랜드 이미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들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개인별, 소그룹별로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이후 공연장에서 예술단의 일원으로 만나면 관객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여 지역예술가들의 주요 수입원을 보면 공연에서 나오는 수입이 아닌 강의, 강사료입니다. 인기강사인 설민석 사례를 보면 실제 설민석은 사학과 출신이 아닌 연극영화과 출신이지만, 자신의 콘텐츠를 크리에이티브화하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지역 예술가들에게도 자기 브랜딩과 마케팅 관점에서 이런 사례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욱 앞서 ‘미스터트롯’ 사례에 대해 언급이 있었는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소년트롯가요제’를 지원한다는 기사가 나면서 많은 기획자로부터 거의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체부나 공공기관은 시장의 실패로 생기는 문화적 공백을 메우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의 공공적 기초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장의 성공에 편승해서 순가락을 얹으려다보니 욕을 먹는 겁니다. 부산문화회관과 같은 공공 공연장의 역할과 활동은 시장 흥행을 추구하는 영리단체들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숙고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다가선다는 취지로 상업적 기획을 쉽게 따라하다

보면 일시적인 성공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공공극장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게 됩니다.

이지훈 다만 ‘미스터트롯’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TV 프로그램의 성공을 오프라인에서 실제공연의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입니다. 온라인 영상 시청자들이 차후에 직접 극장공연을 보러 온다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영상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연뿐 아니라 장소 자체에 대한 마케팅 홍보와도 연결될 수 있어 영상활용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승우 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인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본성적인 측면에서는 프로이트가 인간을 리비도적인 존재, 성적인 존재로 인식한 것이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아직도 프로이트의 인간 본성 중에 성적인 욕망이 인간 삶을 추동하고 예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전되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력’입니다. 공감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립되어 혼자 살 수 없고 사회를 이루어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감(empathy)은 단순한 동정(sympathy)과는 변별되는 개념입니다. 동정이 인간이 겪는 아픔과 슬픔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감정이라면, 공감은 아픔과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며, 기꺼이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인간의 본성 중에 공감을 강조하느냐 하면 인간이 가진 ‘공감력’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키워줄 수 있는 매개가 바로 문화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정신적으로 황폐화 된 이 상황 속에서 예술의 역할이 제1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지닌 이런 공감력이 그 영역들을 성장, 발전시키는 데 근본적인 힘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즉, 가장 선제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힘은 문화예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데요, 이게 문화예술인들이 궁지로 삼아야 될 부분이고, 소명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의 문제를 풀어간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공연장인 부산문화회관의 경우, 면대면의 소규모 공연들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든, 학교든, 아님 지역에 소재한 소집단이든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찾아가는 형태의 예술활동을 통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깝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문화예술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잡게 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전문예술가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진행해 왔는데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지닌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공공예술기관에서는 그들이 판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으로 오면 올수록 가장 큰 문제점이 문화에 있어서도 생산에 비해 소비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수요층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실체적인 고민이 필요한데요, 시민들의 수준을 아마추어에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면 전문예술가들의 예술과 결합될 수 있는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가장 취약한 문제점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공연의 경우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카메라만 동원하여 찍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팀을 투입시켜 한층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의미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면 앞으로 비대면예술로 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청산 덧붙여 한마디만 하자면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민낯이 드러난 곳이 정부 및 문화재단, 문화회관 등 공공기관이라 생각합니다. 문체부만 하더라도 이번 추경 11조 7천억 원 가운데서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디. 이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문화예술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역시 이번 사태가 터진 후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부산문화회관의 경우, 앞서 진행한 온라인공연이 왜 조회 수가 적은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단순히 공연실황만을 보여주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죠. 카메라가 다가가서 연주자의 얼굴도 보여주고 연주자의 손도 가깝게 보여주는 등 현장감 있게 촬영해서 올렸다고 하면 과연 조회 수가 그만큼 나올 것인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문화재단 역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지시사항에만 따를 게 아니라 벌어진 상황을 폭넓게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욱 오늘 현대미술관에 다녀왔는데 요즘 공연을 활용한 흥미로운 시각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연장에서 온라인 기반 새로운 영상콘텐츠를 기획할 때도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에 치중하기 보다는 영상, 미술과 같은 다른 분야 예술가들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혁신적인 실험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산문화회관은 인근 유엔기념공원을 비롯해서 너무 좋은 야외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인근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많지만 이들 가운데 아직 문화회관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내 공연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공원과 야외공간을 활

용해서 참신하고 시민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을 훨씬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이 이런 활동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준영 비대면 예술과 관련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요즘 듣고 있는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이 반드시 대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수업임에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을 통한 대화방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다 이후 화상회의를 거쳐 최근에는 대면 수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처음했을 때는 답답하기 그지 없었는데 이 역시 하다보니 수업의 내용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더군요. 물론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같은 시국에는 비대면 예술 또한 비상대책으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 부산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립합창단 공연이었는데요, 영상을 통해 출연자를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시립합창단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 하며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는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엮어서 진행하는 색다른 형식의 공연을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문화예술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함께하는 예술이 되기 위한 새로운 장르의 무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마

당극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새로운 마당극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지훈 새로운 마당극도 흥미로운 것이 오히려 지금은 야외가 더욱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관객 간 거리만 안전하게 유지된다면 이쯤에서 야외공연과 거리예술을 잘 기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혹시 더 첨언하실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이용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 중 새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산문화회관도 크게 3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앞으로 계속될 만약의 시기를 대비해 공연영상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기술적 뒷받침이 따라야겠지만 처음이라 미흡했던 것들은 앞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카데미 수업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것인데요, 온라인 수업이 주류가 된다면 콘텐츠의 반복 활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문화예술교육 차원의 참여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들을 다시 돌아보고 변화해야 될 것들은 또 구체화시켜 바뀌어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지훈 앞으로는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되돌아 가지는 않을거라 보며 또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만큼 문화예술기관에서도, 예술가들도 이제는 새로운 가치로 혁신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앞으로 그렇게 또 해나가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의 전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부산일보 논설위원



■사진 배준익·홍보팀 대리

오래된 아파트에서 당신을 만나다

갤러리 수정 GALLERY SUJEONG

박나무 자유기고가



동구 수정동의 수정아파트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1969년생이니 이미 오십 년을 넘어 서서히 늙어가고 있다.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만들어질 당시엔 가장 새로운 아파트였으리라. 17개동 1,164세대 4~5천 명의 주민들이 오밀조밀 모여 지지고 볶고 싸우던... 지금은 빈 집도 많고 어르신들이 홀로 계신 경우도 많다. 산복에 살던 고단함을 씻어줄 바다 전망은 이제 초고층 아파트들이 거의 다 가져가 버렸다. 세월은 흐르고 유행은 변하고 사람은 늙고 풍경은 바뀐다. 늘 곁에 있을 것 같은 익숙한 것들도 곧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이 된다. 사라지는 것들을 곁에 붙잡아 두고픈 욕망이 예술이라는 수단을 만든 것 아닐까 싶다.

갤러리 수정. 수정아파트 4동 A408호에 사진전문 갤러리로 자리 잡은 게 2017년 5월 20일, 이제 꼭 3년을 지나고 있다. 이 공간을 만들고 이 끌여가고 있는 사람은 윤창수 사진가. 그이도 수정아파트와 나이가 같고, 실제 20대의 몇 년을 이 아파트에서 살기도 했다. 그는 수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산복도로 일대를 늘 쏘다니며 사진을 찍는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수정아파트 4동 A408호에 자리잡은 사진 전문 갤러리 수정





갤러리 수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선 골목과 골목을 가능한 많이 돌며 천천히 걸어오기를 권하고 싶다

이웃한 어르신을 찍고, 햇볕과 마주한 빨래를 찍고, 갈라진 담벼락 사이로 솟은 작은 생명을 찍는다. 그이의 카메라는 늘 수동태의 객체로 머물던 것들을 능동태의 주체로 삼는다.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업 <주인공 프로젝트>는 그렇게 갤러리 수정에 전시되고, 또 사진집으로도 나왔다.

갤러리 수정은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총 31회의 전시를 해왔는데 7월과 8월은 쉬었다고 한다. 몹시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에어컨 없는 작은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그것은 갤러리 수정의 핸디캡이기도 하겠지만 특장점이기도 하겠다. 갤러리 수정이 산복도로에 있지 않고, 번듯한 시내의 백화점 15층에 있다면 어땠을까? 갤러리 수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선 골목과 골목을 가능한 많이 돌며 천천히 걸어오기를 권하고 싶다. 오래된 마당과 길을 공유하며 살아온 분들의

삶을 상상하며, 갤러리 수정에 발을 들인다면 좋겠다. 그 발품과 마음속에 합당한 작품들이 갤러리의 흰 벽에 기대에 당신을 환영하리라. 욕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요강, 그것을 비추는 거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도 덤으로 드린다.

6월 9일까지는 김홍희, 송영희, 신정익, 안영민, 조순미, 최재목 등 6인의 작가가 찍은 라오스의 모습이 전시된다. 6월 10일부터는 개관 3주년을 기념해 갤러리 수정 소장전이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라니, 헛걸음하는 일은 없으리라. 방문 전에 연락이 닿고 사진가 윤창수의 일정이 허락한다면 전시작들을 함께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사진아카데미를 통해 아마추어 사진가들과 함께 사진을 공부하고 있고, 연말쯤엔 이들의 작품도 전시할 예정이다. 중간에 끼어들어도 좋다고 하니 한 번 연락을 넣어보는 것도 좋겠다.

갤러리 수정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사진을 주로 전시한다. 신진 작가일 경우도 많다. 대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여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 “임대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지역의 작가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얻는 힘이 더 크다” 당장 임대를 해도 수십만 원의 수입이 있을 곳일 텐데... 그이의 독특한 셈법이 끊임없이 전시를 이어가고, 가까이서 멀리서 사람들이 땀흘리며 찾아오는 힘이 지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응원한다면 갤러리 수정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문의 : 갤러리 수정(051-464-6333, gallerysujung.com)



갤러리 수정에서는 6월 9일 까지 '라오스 4박 5일' 전시 열린다.

아티스틱하고 판타스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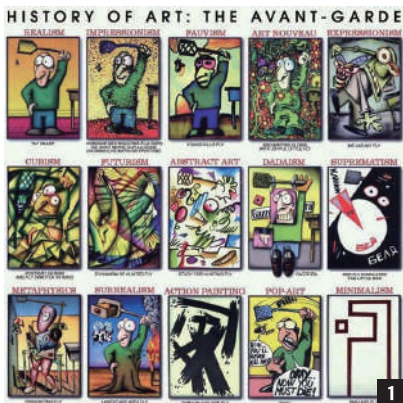
근대미술사의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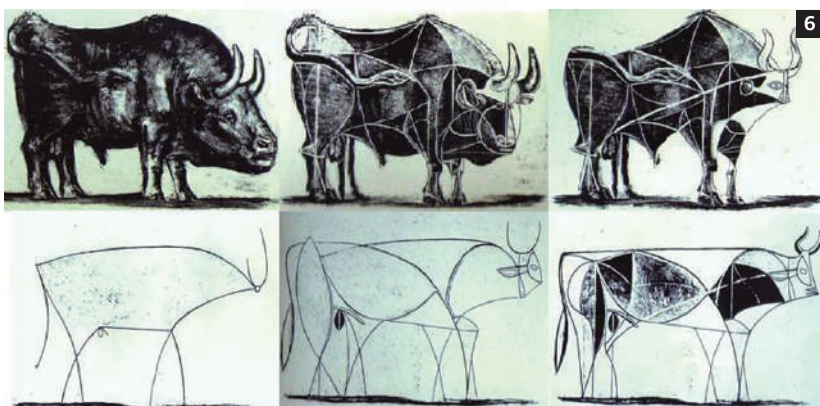
장원 예술학박사, 미술비평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아티스틱 판타스틱 미술사>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미술사 강좌로서, 서양미술사 전체를 시기별로 10회씩 나누어 1년 동안 4분기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1분기는 미술의 태동기인 원시미술부터 고대와 르네상스를 거쳐 근세까지 다루는 <고전미술사>이며, 2분기는 낭만주의, 리얼리즘, 인상주의, 야수파, 입체파 등 우리에게 친숙한 근대의 예술운동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분기는 2차대전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현대미술 운동들을 시기별로 다루고, 4분기는 현대미술이 과거의 미술과 다른 면모를 보이며 내세운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거나 뛰어난 족적을 남긴 국내외 작가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왔습니다. 이번의 2분기는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일정이 많이 늦춰져서 개설되는데, 우리가 흔히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시기의 근현대 미술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모더니즘(Modernism)'이란 용어는, 넓게 보자면 프랑스 시민혁명의 결과로 얻어낸 시민사회의 특성인 '모더니티(Modernity)'를 반영한 예술문화의 한 양상을 가리키지만 좁게는 예술 자체의 내적 형성원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의 변화는 즉각 미술에도 영향을 끼쳤지요. 먼저 과거에 작품 제작을 의뢰하는 주문자였던 왕실과 귀족 또는 교회 세력이 몰락하고 나니, 예술가들은 먼저 작품을 만들어놓고 전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립미술관이 먼저 생겨나고, 작품을 전시하면서 판매하기도 하는 갤러리가 탄생하게 되지요.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술가들이 "이젠 도대체 어떤 주제와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가"였는데, 때마침 '순수예술(fine art)'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철학자 칸트(I. Kant)의 <판단력 비판>에 의해 그 실마리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 떠올리게 되는 생각들은 이 시기에 완전히 정착된 것이지요. 예술가들은 이제부터 자신이 믿고 추구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위의 삽화[그림 1]처럼 다양한 미술운동들이 짧은 시간 안에 계속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1. 근대 모더니즘의 대표적 미술운동들을 보여주는 삽화
2. 장 프랑수아 밀레, <곡괭이를 든 사람> (캔버스에 유채, 81.9x100.3cm, 폴계티미술관, 1860-62년경)
3. <조선농민> 제5권 제2호의 표지(1929년)





4. 에밀 놀데(Emil Nolde)가 1910년대 초에 식민지 조선을 방문했을 당시 그렸던 한국인의 모습 5. 라파엘의 <성모자>(1513-14년)와 루이스 하인의 <셋방의 성모자>(1904년)
6. 피카소, <황소> 시리즈 중 일부 발체(리토그래피, 뉴욕 근대미술관, 1945년) 7. 피카소, <아비뇽의 아가씨들>(캔버스에 유채, 뉴욕 근대미술관, 1907년)

과거에는 왕과 귀족 등의 지배계층이 원하던 역사, 신화, 종교의 주제가 예술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 시대부터는 우리 삶의 일상을 주제로 삼기 시작해서 밀레의 작품과 같이 농민이나 도시의 노동자들 [그림 2],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근대인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밀레의 작품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이미 1920년대에 <조선농민>이라는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림 3] 또한 에밀 놀데라는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는 이보다 앞선 시기에 조선을 방문하고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나 한강의 풍경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림 4] 놀데가 그린 그림은 당시 외국에 대한 유럽인의 시각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이 추구하던 조형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이처럼 전문적인 미술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을 함께 곁들임으로써 흥미로운 사실들로부터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인상주의와 이후의 작품들이 사람이나 사물들의 모습을 사실처럼 그리지 않게 된 것은 [그림 5]에서 보듯이 사진의 발명과 보급

으로 인해 예술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들을 찾아나서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림 5] 그리하여 피카소 같은 예술가들은 형태를 분해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만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림 6] 이와 같이 본 강좌는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전문적 내용부터 배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다루어지므로, 수강생들에게는 풍성하게 작품을 감상하며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른쪽에 피카소가 그린 <아비뇽의 아가씨들> [그림 7]은 세잔의 영향을 받아 입체주의의 문을 열었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속에 나타난 여인들 중에서 서 있는 인물은 몇 명일까요? 이것이 입체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만, 정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강신청하고 수업을 들으러 오셔서 서구의 근대미술을 풍성하게 감상해보시면 어떨까요?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팬레터



● **‘매력적인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 호평받는 웰메이드 창작뮤지컬 ‘팬레터’가 부산을 찾는다.**

뮤지컬 ‘팬레터’는 지난 2015년 우수 창작뮤지컬을 발굴하고자 기획된 창작뮤지컬 공모전 ‘글로벌 뮤지컬 라이브’에서 최종 선정된 작품으로, 지난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당대 최고 문인들과 그 문인들을 동경하던 작가 지망생의 성장기를 담고 있다. 자유를 억압하던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가 이상과 김유정,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고 열망했던 경성시대 문인들의 모임인 ‘구인회’를 모티브로,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예술가들의 사랑과 예술, 삶과 고민을 엿볼 수 있다.

1930년대 경성, 경성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인 세훈은 카페에서 쉬던 중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다. 히카루라는 죽은 여류작가의 소설이 출간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알려지지 않았던 그녀의 진짜 정체까지 밝혀진다고 한다. 세훈은 유치장에 갇혀있는, 문인들의 모임 ‘칠인회’ 멤버이자 소설가인 이윤을 찾아가 그 출간을 중지해달라고 부탁한다. 이윤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히카루의 애인이었던 소설가 김해진이 그

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까지 품에서 꺼내 자랑한다. 세훈은 자신이 그 편지를 꼭 봐야 한다고 말하며, 히카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뮤지컬 ‘팬레터’는 지난 2016년 초연무대 후 실제 문학작품을 인용한 아름다운 대사와 감미로운 선율,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로 ‘팬레터 열풍’, ‘팬레터 애틀’을 일으키며 매진 신화를 달성해오고 있다. 홍콩 영화계의 거장 왕가위 감독이 “영화로 만들고 싶을만큼 매력적이다”며 투자 제작에 참여했으며, 2018년 한국 창작뮤지컬로서는 최초로 가진 대만공연에서 전 좌석을 매진시키며 큰 호평을 받았다. 2016년 관객들이 뽑은 올해의 창작뮤지컬 1위, 2017년 창작뮤지컬 올해의 레퍼토리, 2017년 공연 통합 순위 1위에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는 관객들이 뽑은 가장 기대되는 창작뮤지컬 재연 1위에 선정되면서 관객과 평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초연부터 전 시즌동안 열연해온 배우들과 완벽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새로운 배우들의 최강 캐스팅으로 관객들에게 관객들에게 따뜻한 치유와 위로를 전한다.

- **일 시**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1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4일 일요일 오후 3:00
-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제179회 정기연주회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연주회 이기선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Dona Nobis Pacem'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



● 부산시립합창단 이기선 신임 예술감독 취임연주회로 마련되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79회 정기연주회가 6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이기선 신임 예술감독의 지휘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원주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이 함께 출연, 베토벤 '합창환상곡'과 본 윌리엄스의 칸타타 '우리에게 평화를(Dona Nobis Pacem)'를 들려준다. 지난 2016년 12월 이후 오랫동안 공석이던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에 선임된 이기선 예술감독은 미국 줄리아드 음악대학 및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하고 성남시립합창단 음악감독 및 고양, 대구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실력파이다. 깊이 있는 음악과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지휘자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울 챔버 오케스트라, 울 챔버 콰이어 지휘자,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장,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종신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첫 곡인 베토벤 '합창환상곡'은 피아노 협주곡에 성악과 합창을 결합시킨 파격적인 형식의 작품으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의 초석을 이루는 곡이다. 크게 피아노 독주, 오케스트라

와 피아노의 협주,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합창의 협주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종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유지수가 연주하고 원주시립합창단이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노래한다.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초청독주회 및 협연, 실내악 무대를 통해 호평받은 유지수는 다양한 기획 시리즈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어지는 곡인 '우리에게 평화를(Dona Nobis Pacem)'은 영국 민족음악 운동의 개척자인 본 윌리엄스가 윌트 휘트먼의 시 '화해'에 곡을 붙인 칸타타로, 세계대전이 다가오던 불안했던 상황 속에서도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며 작곡한 작품이다. 독창자인 소프라노 박미자, 바리톤 양희준과 함께 부산시립합창단, 원주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120여명의 예술인이 이기선 예술감독의 취임을 축하하며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있는 박미자는 그동안 국내외 주요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주역가수로 활동했으며, 2010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여자주역상, 2017 올해의 성악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교수로 있는 양희준은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일 시 6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6회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기념 화평음악회



●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 '화평음악회'가 6월 2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김종욱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전 세계를 감동시킨 타악그룹 '공명'의 협연으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평화의 염원을 담은 위촉곡 '전쟁과 평화'를 비롯해 '공명'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지난 1997년 결성된 타악그룹 '공명'은 그동안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재구성을 통해 우리 음악의 다양성과 새로운 소리를 창출하며 국내 및 세계무대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켜온 그룹이다. 조민수, 박승원, 송경근, 강선일 등 추계예술대 동문으로 구성됐으며, 직접 고안한 대나무 악기 '공명'을 비롯해 관악기와 타악기, 전자악기 등으로 전통음악의 다양한 소리를 빚어왔다. 팀명과 동일한 악기 '공명'은 직경이 15센티미터가량 되는 대나무를 마디에 따라 각기 다른 크기로 잘라 다양한 음높이를 표현할 수 있게 제작된 악기로, '함께 울린다, 혹은 함께 밝아진다'는 의미로 그들의 음악적 바램을 담고 있다.

데뷔 이후 주요 콘서트 무대는 물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에

이르기까지 장르에 구분없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공명'은 특히 수많은 해외 페스티벌과 아트마켓에 초청받아 색다른 음악 세계와 유쾌한 퍼포먼스로 호평받아왔다. 2001년에는 세계적인 무용가 고훈 피나 바우슈의 작품에 그들의 음악이 선정됐으며 'WOMEX', 'MIDEM' 등 세계적인 뮤직 페스티벌에 한국대표로 참여해 큰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도 2016년 한-에스토니아 수교 25주년 기념 문화행사, 2017년 대만 월드뮤직페스티벌 초청공연, 2018년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관계 10주년 기념행사, 2019년 한-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수교 40주년 기념공연 등 다수 무대에 서며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그룹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공명'의 대표적인 창작곡 '보물섬'과 국악협주곡 '전쟁과 평화'가 연주되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 무대에서는 공명의 또다른 창작곡인 '통해야, 놀자', '해바라기, '뭉드씨' 등 4곡을 들려준다. '전쟁과 평화'는 강한 북 소리와 죽음을 상징하는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형상화한 태평소, 그리고 조용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애잔한 대금 선율로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표현한 작품이다.

- 일 시 6월 26일 금요일 오후 8: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문화가 있는날 전석 5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Preview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디 오디언스’



●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이야기를 다룬 영국 연극계의 화제작 ‘디 오디언스’를 생생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NT-Live ‘디 오디언스’가 6월 2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상영된다.

‘NT-Live’는 영국국립극장(National Theatre)이 영미 연극계 화제작을 라이브로 촬영해 다른 지역의 상영관에서 생중계, 혹은 녹화로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실제 공연의 ‘라이브성’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정교한 촬영과 편집으로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과 연기를 실제 공연보다 더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 국립극장에 의해 소개된 후 매년 행렬을 이어가고 있으며, (재)부산문화회관에서도 지난해 2019-20 시즌을 통해 지금까지 총 3편의 작품을 소개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2월 15일 런던 웨스트엔드 길구드극장에서 초연된 연극 ‘디 오디언스’는 영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피터 모건의 희곡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지난 1952년 즉위한 이래 60년 넘도록 왕좌를 지키고 있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와 총리의 비공개 개인접견을 그린 작품이다. 제목인 ‘디 오디언스’는 이 비공개 접견을 일컫는 말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집권기간 동안 매

주 한 차례 12명의 총리와 비공개 접견을 했다고 한다. 무대에서는 여왕과 의회가 정치적 난제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해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접견의 내용이 극비에 부쳐져 그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무대 위의 모든 대화는 상상해서 연출한 것이지만 사실적인 대사와 연출, 생생한 연기가 관객을 빠져들게 한다.

‘디 오디언스’는 막강한 제작진과 출연진의 호흡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작가인 피터 모건은 이 작품에 앞서 지난 2006년 개봉한 영화 ‘더 퀸’의 대본을 쓴 바 있다. 이 영화 또한 엘리자베스 2세가 주인공으로, 영화에서 엘리자베스 2세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연극 ‘디 오디언스’의 여왕 역을 연기한 헬렌 미렌이다. ‘디 오디언스’는 피터 모건과 헬렌 미렌이 다시 만난 무대로, 연출은 영화 ‘빌리 엘리어트’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감독 스티븐 달드리가 맡았다. 특히 헬렌 미렌은 영화 ‘더 퀸’으로 2007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디 오디언스’로 2013년 제37회 로런스 올리비에 어워즈 여우주연상, 2013년 제59회 이브닝 스탠더드 시어터 어워즈 여우주연상, 2015년 제69회 토니 어워즈 여우주연상을 휩쓸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 일 시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Preview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학전 어린이 무대 우리는 친구다



● **아이들의 일상을 섬세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려내어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호평받은 극단 학전의 어린이뮤지컬 ‘우리는 친구다’가 부산을 찾는다.**

연출자 김민기가 지난 1994년 결성한 극단 학전은 그 해 록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시작으로 ‘모스키토’, ‘익형제’, ‘개똥이’ 등 다양한 창작뮤지컬을 통해 우리 정서와 노랫말이 살아있는 한국적 뮤지컬의 문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극단 학전이 어린이 무대로 내건 첫 번째 작품인 ‘우리는 친구다’는 독립 그림스 극단이 1978년 제작한 어린이뮤지컬 ‘막스와 밀리(Max und Milli)’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새롭게 변안한 작품으로, 2004년 초연된 후 매년 공연되고 있는 스테디셀러극이다. ‘어린이들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 행복, 인생에 대한 좌표를 제시해 주고자’하는 김민기 연출가의 철학이 뚜렷이 드러난 작품으로, 지난 2008년에는 ‘어머니공연평가단’이 뽑은 ‘올해의 좋은 공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겁쟁이가 되어버린 열 살 민호와 활달하고 영악한 동생 일곱 살 슬기 남매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오게 된다. 어느 날 남매는 놀이터에서 뭉치를 만나게 되고, 힘도 세 보

이고 무섭게 생긴 뭉치는 민호, 슬기 남매를 겁 주지만, 이내 친한 친구가 된다. 어느 날 뭉치가 실수로 하수구에 열쇠를 빠뜨리게 되고, 아빠에게 혼날 생각에 겁먹은 뭉치를 도와주기 위해 민호, 슬기가 나서는데...

제목 그대로 아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우리는 친구다’는 민호, 슬기 남매와 새로 사귄 뭉치를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일상과 고민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며 아이들이 한 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극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흔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이다. 부모님의 이혼 후 매번 동생 편만 드는 엄마가 서운한 첫째 민호, 놀아 주는 사람이 없어 텔레비전만 보기 바쁜 슬기, 억박지르는 아빠가 무서운 뭉치는 현실의 아이들과 닮아 있다. 어린이 관객들은 자신들과 꼭 닮은 모습에 몰입해 극에 공감하며 여기에 변화무쌍한 무대와 록에서부터 블루스, 발라드까지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 음악이 극의 재미를 더한다. 특히 ‘우리는 친구다’가 갖는 또 다른 재미는 무대의 변형과 그 공간을 뛰어노는 아이들의 놀이이다. 아이들의 이층침대는 어느새 놀이터 미끄럼틀로 바뀌며, 이 곳에서 민호와 슬기, 뭉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배개 싸움, 자리 뺏기, 숨바꼭질 놀이를 한다.

- **일 시**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00, 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36개월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Preview

부산시립극단 제67회 정기공연 갈매기



-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었던 부산시립극단 2020년 첫 정기공연이 7월 3일부터 열흘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극단의 2020년 올해 정기공연의 키워드는 ‘체홉’. 19세기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로, 특히 희곡에 있어 역사나 로맨스를 배제하고 일상에서의 인간 심리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유진 오닐, 테네시 윌리엄스 같은 20세기 극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근대연극의 창시자로 꼽히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희곡들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연되고 있을 만큼 널리 사랑받고 있다.

‘체홉 시리즈’ 그 첫 무대에서는 체홉의 첫 장막 희곡인 ‘갈매기’를 예술감독 김지용의 연출로 선보인다. 지난 189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된 ‘갈매기’는 당시 흥행 실패도 모자라 엄청난 흑평에 시달렸으나, 1898년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출로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재상연되어 유례없는 극찬을 받았다. 체홉의 ‘갈매기’는 여러 면에서 이전 연극과 차이를 보인다. 희곡 속의 언어를 기존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를 사용하면서 배우들의 수사적 표현과 낭송에 익숙했던 당시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줬으며, 연기 양식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체홉 이후부터는 인물의 성격이나 정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주력하게 되었다. ‘갈매기’는 체홉의 새로운 극작 원칙과 주제가 본격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으로, 그의 객관적 사실주의가 근대연극의 주류로 부상하게 될 것을 예고한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부산시립극단의 ‘갈매기’는 무대 위에 새롭게 원형무대를 구축함으로써 관객들이 풍경이 아닌 극 속의 현실적인 관찰자로 새로운 시각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을 비롯해 지난 4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8명의 객원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선다. 연출을 맡은 김지용 예술감독은 이번 무대가 “배우들의 연기, 희곡의 대사, 무대 양식,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부합되는 주제 의식. 모든 면에서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새로운 공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립극단은 7월 11일 공연을 마친 후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 **일 시** 7월 3일(금)-1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극단 607-3123

Preview

부산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재개관

‘부산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부산시민회관이 지난 일년간 대대적인 대극장 무대시설 리모델링을 끝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지난 1973년 개관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며 노후화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은 시설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면서 올해 7월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 47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부산시민들과 함께 해온 부산시민회관은 특히 지난 2017년 10월 1일, (재)부산문화회관과 통합, 운영되면서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 장르 중심의 시민친화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열린 문화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BUSAN

CITIZEN'S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 도입으로 수준높은 대형공연 유치 가능

특히 이번 대극장 무대시설 리모델링은 무대를 사용하는 실제 공연예술가 및 무대 작업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1973년산 아날로그 방식에서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 공연예술가가 원하는 다양한 연출효과 구현이 가능해짐으로써 최근 건립된 공연장과 비교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우선 전체 무대기계 기구 수가 기존 노후화된 38개의 수동방식에서 48개의 최첨단 자동방식으로 전면 교체됐다. 그 중에서도 무대를 만들고 다음 장면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가진 무대장치봉이 11개에서 31개로 대폭 늘어나고, 1개씩 움직이던 수동 로프 방식에서 컴퓨터 버튼 하나로 31개 무대장치봉을 동시에 원하는 위치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무대연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노후화된 음향반사판을 전면 교체하여 연주자들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게 됐으며, 전문공연장으로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던 기존 프로시니엄(객석에서 보이는 사각 무대화면)의 폭을 줄이면서 부족했던 측무대 준비공간(Back Stage)이 확장되어 더 많은 무대장치물과 대기인원 수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화재로부터 객석을 보호하기 위한 방화막이 대극장 무대에 새롭게 설치됐으며, 대극장 로비의 고객센터 및 물품보관소 등 관객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진행되면서 7월에는 새롭게 달라진 부산시민회관을 만날 수 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에서부터 가수 주현미까지 재개관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공연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시민회관 재개관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월별로 대형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우선 7월 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재개관 기념 시민음악회 '베토벤 : 운명 속의 거인, 희망을 노래하다'가 무대에 오른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피아니스트 유지수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의료계 종사자, 자원봉사자, 보건·소방·경찰·교육 공무원 및 예술가 등을 초청, 부산시민회관의 재개관을 기념하는 한편, 코로나19를 극복한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한 화합의 무대로 마련된다. 7월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무의미한 클래식 스타, 피아니스트 조성진(7월 15일)과 '공연의 신', '콘서트의 황제' 가수 이승환(7월 18일-19일)이 부산시민회관을 찾는다. 8월에는 남녀 노소가 사랑하는 디즈니의 명곡들로 관객들을 초대하는,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디즈니 인 콘서트'(8월 29일)가 열리며, 9월에는 어린이들의 영원한 히어로, 뮤지컬 '반개맨'(9월 12일-13일)이 마련되어 있다. 10월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재즈 뮤지션 케니지의 2020 월드투어 콘서트(10월 23일-24일)에 이어 11월에는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되고 있는 창작뮤지컬 '광주'(11월 20일-22일), 12월에는 가수 주현미의 히트곡을 재즈의 즉흥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무대 'K-JAZZ와 만나는 주현미 러브레터'(12월 11일-12일)로 마무리 된다.

JO SUNG-JIN
JOO HYUN MI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재개관 기념 시민음악회

베토벤 : 운명 속의 거인, 희망을 노래하다

7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초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재개관을 기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선포하여 부산시민들에
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

압도적인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7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2015년 한국인 최초 '쇼팽 국제콩쿠르' 우
승자로, 전 세계 클래식계 대표 스타로 떠
오른 젊은 거장 조성진의 무대. 이번 무대
에서 슈만의 '숲의 정경', '유모레스크', 베
르크 '피아노 소나타 제1번', 리스트 '피아
노 소나타 나단조'를 들려준다.

무적전설

이승환 30주년 콘서트

7월 18일 토요일 오후 6:00
7월 19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15만4천원,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9천원



데뷔 30주년 '무적
전설' 이승환이 새
로 쓰는 역사적 무
대로 감동과 충격
의 무대를 선사한
다.

감동을 넘어서 마법의 시간 2020 디즈니 인 콘서트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모아나, 라이
온 킹, 겨울왕국 등
남녀 노소가 사랑
하는 디즈니의 명
곡들로 관객들을

초대하는 '2020 디즈니 인 콘서트'. 대형
스크린으로 펼쳐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상과 함께,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디
즈니 콘서트 오리지널 싱어즈가 노래하는
디즈니 공식 라이선스 무대로, 2014년 서
울에서 첫 내한공연을 가진 후 매년 러브
콜을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EBS 번개맨 20주년 기념대작 뮤지컬 '번개맨'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9월 1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5만원 (24개월 이상 관람 가능)



EBS 교육방송을
대표하는 어린이들
의 영원한 히어로,
번개맨이 탄생 20
주년을 맞아 완전
히 새롭고 스펙타
클한 대형 뮤지컬로 찾아온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재즈 뮤지션! 2020 케니 지 월드투어 콘서트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00,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년만에 한국을 찾는 세계적인 색소폰 연
주자 케니 지의 무대. 지난 1995년 첫 내
한공연을 시작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케니 지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한국
을 찾으면서 연주 음악의 불모지였던 한
국에 색소폰 연주음악 열풍을 일으켰다.

뮤지컬 '광주'

11월 20일(금)-22일(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공연시간 미정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되고 있는 뮤
지컬 '광주'. 1980
년대 광주 시민들
이 군부 정권에 대

항, 민주화를 요구하며 발생한 5·18 민주
화운동과 그 숭고한 의지를 담고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K-JAZZ와 만나는 주현미 '러브레터'

12월 11일(금)-12일(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공연시간 미정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재즈의 즉
흥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무대. 가
수 주현미와 재즈보컬 이경우, 한국 최고
의 정통 재즈그룹 필윤그룹이 출연, 대중
가요 선율에 재즈의 POP코드를 가미하여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무대
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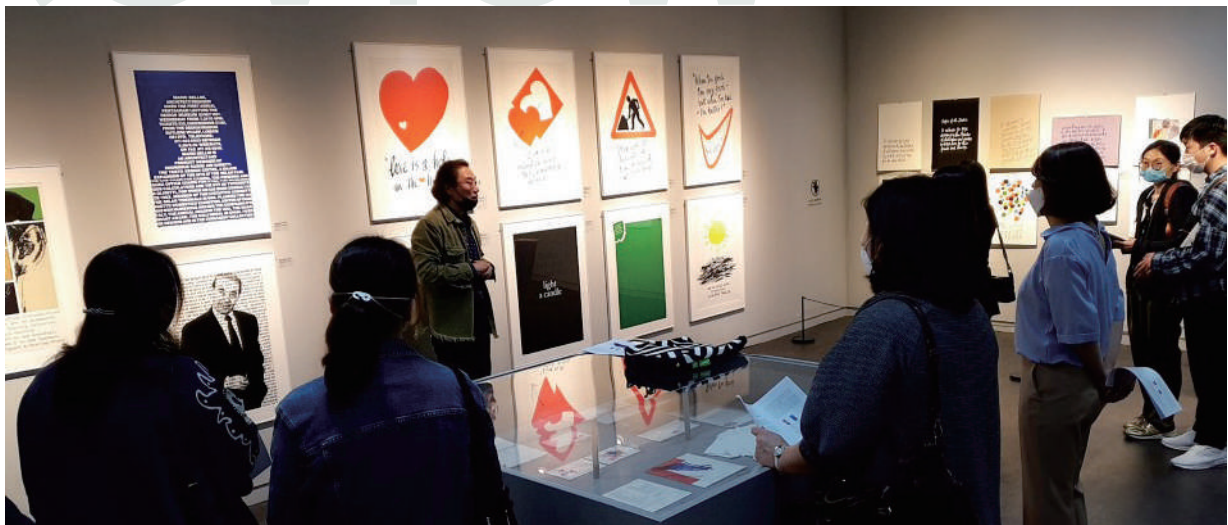
부산에 반갑게 등장한 앨런 플레처

앨런 플레처 회고전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

◆ 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홍동식**

● 부산에서 생소한 그래픽디자이너의 전시가 열렸다. 신기하고도 놀라웠다. 부산에서 20여 년간 시각디자인 전공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현대 그래픽디자인의 형성과 중흥을 외쳐 왔지만, 이런 내용들은 대형서점의 한구석에 있는 시각디자인 분야의 서적 속에 갇혀 있거나 간혹 블로그와 검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강의를 하며 검증되지 못한 역사적 산물의 고귀함을 외치는 나의 마음은 늘 가식과 현실에서 줄타기하는 마음이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우리 국민들 누구에게도 친숙한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듯이 시각디자인 전공자로서는 친숙하게 느껴져야만 하는 인물 중 한명이 앨런 플레처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 재앙인 COVID-19의 팬데믹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마스크를 낀 채 어렵게 학생들과 대면하며 부산시민회관에서 관람할 수 있었기에 더욱 반가운 전시로 기억되고 있다. KT&G 상상마당 시각예술사업부에서 주관한 연계 전시이지만, 부산시민회관의 안목은 다른 지자체 문화 사업부와는 차원이 다른 전시의 선점이며,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 걸맞은 고품격 문화 유치를 위한 갈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각디자인은 컬러 인쇄의 원조인 석판화(Lithograph)의 탄생과 함께 지나온 역사이기에 15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앨런 플레처의 모국인 영국은 17세기 산업혁명을 일으켰으며 그리고 전 세계의 식민지화에 열을 올렸지만 현재 미국만큼의 경제 대국이 되지 못했고, 선진 예술을 갈망하며 모든 예술 부문에 깊이 심취했었지만 스타성을 가진 예술인들의 등장은 영국 역사 속에는 찾기 어려웠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곡가와 음악가인 베토벤과 모차르트는 이웃 국가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등장했다. 유명 화가들 또한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피카소, 마티스는



스페인, 시대성은 다르지만 고흐, 몬드리안은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르네상스의 거장인 미켈란젤로, 라파엘은 이탈리아에서 탄생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의 수려한 문학작품과 잉글리시의 파워를 가지고 예술의 지위를 높게 지향했지만, 일조량이 부족한 날씨 속에서 음식 또한 생선과 감자를 함께 튀겨서 만든 피시 앤 칩스(Fishi & Chips)가 더 유명한 나라가 되었다.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스타성과 천재성의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던 영국에서 앨런 플레처의 등장은 예술분야에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순수 미술이 아닌 응용미술이라고 불리는 그래픽디자인 분야에서 경제적 이윤의 추구하고 함께 예술과 접목하는 영국에서의 활동은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래픽디자인은 인쇄 매체를 통하여 표현 또는 제작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어떤 메시지의 시각적 전달을 목적으로 한 시각 정보 디자인 중에서 주로 인쇄물 등을 위한 평면적 표현의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레터링,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등의 조형 기능을 통해 신문광고, 잡지광고, 우편 광고 등의 광고물이나 포스터, 카탈로그, 캘린더, 서적의 판형과 표지, 레코드 앨범의 재킷 등을 조형적으로 꾸미는 창작 활동을 말한다. 영화나 텔레비전의 타이틀 디자인도 포함된다. 그래픽디자인은 예술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표현에 중점을 둔 전문적인 학문분야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창조하고 기호, 이미지와 글자의 조합으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새롭게 표현하고 재해석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용한다.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타이포그래피, 비주얼 아트와 페이지 레이아웃 방법을 최종 결과물을 만들 때 사용한다. 앨런 플레처는 그래픽디자이너로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총괄시켰다, 시각디자인 전공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유럽 최고의 디자인학교 영국 왕립학교(RCA)에서 수학하였고, 유명 그 이상을 넘어서 팬터그램에서 20년 가까이 유수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 개인 스튜디오에서 감성 충만한 작품 활동으로 행복한 시각디자인자의 일생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래픽디자인의 역사는 실험적 태도와 다양한 표현양식의 표현을 통해서 형성·발전되었다. 특히 20세기 초부터 그 양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래픽디자이너들은 새로운 표현 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아르누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디자인 어휘들은 영국에서 주도한 빅토리아 시대 디자인 관

습에 대한 도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픽디자인과 예술에 있어 표현 방법에 대한 변화의 역사는 그 시대의 이념과 규칙, 그리고 현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방법론의 창안을 위한 도전의 결과로 인지되었다. 따라서 그래픽디자인의 발전도 이와 같이 역사적 시대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했다고 볼 수 있다. 앨런 플레처, 그의 작업에서 또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는 현대 그래픽디자인의 표현 양상에 큰 변화를 준 역사적 계기인 현대미술의 이해 또한 두루 섭렵했으며 그 영향력으로 이번 전시의 대표 포스터에 등장하는 칸딘스키의 오마주 또한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그가 지냈던 시대를 살펴보면 그 시대의 예술, 철학, 문학은 동시대를 아우르면서 같은 사상과 이념을 추구하게 된다. 이에 지대한 이념을 준 계기는 아방가르드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 모더니즘의 급진적 반대 사상인 포스트모더니즘이다. 현대 그래픽디자인은 모던 타이포그래피의 전개 과정과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측면에 대한 이해는 현대 그래픽디자인의 표현양식에 대한 큰 영향으로 현대 그래픽디자이너가 새로워지길 원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듯 플레처의 그래픽디자인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예술을 통한 그래픽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2학년 학생들과의 관람에서 느낀 것 중 하나. 저자가 20여 년 전 미국에서 시각디자인 전공으로 유학하던 시절 앨런 플레처의 오리지널 원작을 보기를 갈망한 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현재 그 실물을 대하고 있는 반가운 마음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흥분 상태이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새롭고 자극적인 작품이 아닌 평범한 그래픽 작품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기에 1960년대에 컴퓨터가 없이 순수하게 손으로 작업한 대작이라는 설명을 몇 번이나 강조했어야 했다. 앞에서 언급한 검증되지 못한 역사적 산물의 고귀함을 외치는 나의 모습이 다시 보였지만 이 또한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정말 보는 것이 믿는 세상이 있음에 지독한 팬데믹 속에서 소박한 행복함을 느낀다. 아직 남은 전시 기간이 있지만 고약한 바이러스의 창궐로 일반인들의 관람이 쉽지는 않겠지만 부산의 많은 시각디자인 전공자들이 관람하여 지역의 디자인 발전을 위한 저변 확대가 되길 기대한다. Seeing is Believing.

부산문화회관

김혜선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6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음악적, 테크닉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지닌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로, 풍부한 감성적 기질로 음악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난 예술가’라는 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혜선 귀국 리사이틀.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도독, 만하임 국립 음대 석사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혜선은 귀국 후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음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연주자로서의 폭 넓고 다채로운 연주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프로그램

스카를라티/소나타 가장조 K.322
 베토벤/고별
 몽살바헤/이베티를 위한 소나티네
 리스트/발라드
 프로코피예프/소나타 작품 83 제7번 등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팬레터

일 시 |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13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4일 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 8천원, S석 6만 6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매력적인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 호평받는 웰메이드 창작뮤지컬 ‘팬레터’.

지난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가 이상과 김유정,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고 열망했던 경성 시대 문인들의 모임인 ‘구인회’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 ‘팬레터’는 지난 2016년 초연 후 실제 문학 작품을 인용한 아름다운 대사와 감미로운 선율,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로 ‘팬레터 열풍’, ‘팬레터 열매’를 일으키며 매진 신화를 이어오고 있다.

- 작/한재은 • 연출/김태형
- 작곡/박현숙 • 안무/신선호

(사)아지무스오페라단 기획공연 코로나19 극복 국민음악회 오페라 갈라콘서트

일 시 | 6월 14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선착순 문자신청)
 문 의 | (사)아지무스오페라단 010-8520-4649



단합과 투지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 ‘코로나19 극복 국민음악회’.

오페라 갈라콘서트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동의대학교 윤상운 교수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부

산과 소프라노 신미경, 김혜경, 황윤정, 김은수, 김달의, 테너 박호승, 강학운, 김준연, 바리톤 박대용, 심정보 등 국내 유명 성악가들이 출연, 투란도트, 마술피리, 카르멘, 라보엠 등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와 2중창으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은 초대로 진행되며, 6월 1일부터 문자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좌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라희 바이올린 독주회 The Journey to Baroque

일 시 | 6월 14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갈라뮤직 747-3468



10년간의 공백을 깨고 오랜만에 독주회를 여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라희의 다섯 번째 독주회.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음악원 바이올린 전공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실내악 전공 최고연주자과정, 지휘 전공 최고

연주자과정을 수료한 이라희는 신라대학교 외래 교수, 부산예중, 부산예고에 출강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양음악사의 첫 바이올린 학파로 일컬어지는 바로크시대의 작곡가 타르티니의 소나타와 바로크 바이올린 곡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샤콘느’ 등 바로크 시대 두 거장의 작품과 바로크 스타일이 투영된 20세기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옛 것을 계승하여 새 것을 창출하는 ‘온고지신’의 의미를 바이올린 음악에서 찾아본다.

- 해설/하경희 • 피아노/나예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일 시 | 6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6월 19일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4회 정기연주회에 앞서 공개 리허설 무대로 마련되는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5개월만에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4회 정기연주회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 교향곡 제1번을 비롯해 베토벤의 작품들로 꾸며진다.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65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탄생 250주년 특별기획 ‘영웅’, ‘운명’ & 교향곡 7번

일 시 | 6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단체 20인 이상 30% 할인)
 문 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지난 2009년 7월 창단 후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 온 (사)부산네오파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로서는 처음으로 상근체제로 운영하며 매달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는 (사)부산네오파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올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 제5번 ‘운명’, 그리고 교향곡 제7번 등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시련의 시기에 탄생된 명곡들을 통해 거장 베토벤의 음악세계를 음미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 지휘/홍성택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4회 정기연주회 거장의 레제로

일 시 |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2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4회 정기연주회 올해로 음악인생 64년째를 맞는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일흔을 넘긴 나이에도 매일 연습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곡에 도전하고 있다.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백건우가 들려주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비롯해 베토벤의 작품들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베토벤/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베토벤/교향곡 제1번 등

2020년 제29회 부산무용제

일 시 | 6월 22일-24일 월-수요일 오후 7:00
중극장 [무관객 공연]
문 의 | (사)부산무용협회 632-5116
busandance.com



창작무용 경연을 통해 지역의 전문 무용단체와 무용인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온 부산무용제는 10월에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부산대표팀을 선발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무용축제로, 올해는 현대무용단 자유와 부산발레연구회, 춤패바람, 하야로비무용단, 손영일무용단 등 5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첫날인 22일에는 알베르 까위의 소설 '이방인' 중 법정 장면을 무대로 옮긴 현대무용단자유(안무 박근태)의 'Stranger-in a court', 저마다 꿈꾸는 세상을 춤사위에 담은 부산발레연구회(안무 김한나)의 '내가 원하는 오직 한가지', 독립운동을

하던 남편을 잃고 독립투사가 되어가는 한 여인의 일생을 그린 춤패바람(안무 강주미)의 '비밀'이 무대에 오른다.

23일에는 생명의 근원적인 태동과 인간들의 삶을 몸짓을 춤사위로 담아낸 하야로비무용단(안무 정기정)의 '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자식의 고마움을 형상화한 손영일무용단(안무 손영일)의 '부모님께 쓰는 편지', 그리고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지난해 부산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국춤모임 짓(안무 배정현)의 축하공연 '푸른 점, 취한 꽃'이 관객과 만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객없이 경연을 진행하며, 매년 일반시민들의 참여로 야외에서 진행해온 시민춤한마당도 열리지 않는다.

22일 프로그램

현대무용단 자유 'Stranger - in a court'
부산발레연구회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춤패바람 '비밀'

23일 프로그램

하야로비무용단 '태...', '태'
손영일무용단 '부모님께 쓰는 편지'

24일 프로그램

한국춤모임 짓 '푸른 점, 취한 꽃'
[2019 부산무용제 대상팀 축하공연]
시상식 및 폐막식

박지혜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타건력이 대단하고 음폭도 커 대형 연주인의 재질이 농후하다’는 평을 받는 피아니스트 박지혜 귀국 독주회.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를 수석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유학, 빈 국립음악

대학에서 디플로마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박지혜는 루이지 자누 콜리 국제음악콩쿠르 심사위원 만장일치 1위, 포리히 국제음악콩쿠르 1위, 브람스 콩쿠르 2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심사위원단의 호평과 청중들의 찬사를 받으며 국제무대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소나타 제21번 D.960
슈만/유모레스크 작품 20
카푸스틴/변주곡 작품 41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제10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일 시 | 6월 23일-24일 화-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10만원, R석 7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동국예술기획 010-4762-4333



동국예술기획과 한국명인원이 주최, 주관하는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제10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지난 1990년 11월, 국립국악원에서 첫 발을 내딛은 후 지난 31년동안 전통의 원형 보존과 전승이라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전통춤의 뿌리를 지켜온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그동안 조선시대의 마지막 무용 명무 고 김천홍 선생을 비롯하여 한 시대의 전통예술을 대표하는 판소리 명창 고 박동진 선생, 명무 고 김계화 선생, 일인창무곡 고 공옥진 선생, 명무 고 이매방 선생, 배뱅이굿 고 이은관 선생, 여창가곡 고 김월하 선생, 가야금병창 고 박귀희 선생 등 전통예술분야의 명인들이 무대를 빛낸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국예술기획 박동국 대표의 해설로 가장 한국적인 춤사위와 함께 시낭송과 영상이 어우러지는 명품 무대를 만날 수 있다.

23일(화) 명무전

무녀도(박아림_대전시무형문화재 제20호 살풀이춤 이수자), 살풀이춤(김지연_단국대학교 교수), 태평무(이순림_무용학박사, 최태선_서울시립무용단 지도위원), 한량무(이윤제, 이명순_맹사성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영남산조무(정진욱_경남대학교 교수), 버구춤(서한우_버구춤 보존회 회장 외), 동래입춤(윤여숙_동래고무 전수교육조교), 애련(홍기태_해월무용단 단장)

24일(수) 전무후무(前無後無)

시낭송 '명인명무전의 노래'(정명숙_대구예술대학교 강사), 호남검무(김자연_사단법인 한국무용연합회 회장 외), 예기무(김광숙_인간문화재), 고깔소고춤(정인삼_인간문화재), 강선영류 태평무(고선아_중앙대학교 교수 외), 진도씻김굿(송순단_진도씻김굿 전수교육조교 외), 이매방류살풀이춤(정명숙_인간문화재), 동래한량춤(김진홍_인간문화재, 김갑용_한국예총부산지회 부회장 외), 한울복춤(황보영_한울복춤 보존회 회장 외)

• 총예술감독, 해설/박동국
• 구성 기획/정세미

양상블 더 블로섬의 열세 번째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양상블 더 블로섬 010-3284-9428

피아니스트 심하정, 플루티스트 김윤희, 바이올리니스트 정다희, 안은지, 비올리스트 김가민, 첼리스트 김나래 등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성 연주자 6명으로 구성된 양상블 더 블로섬의 무대. '꽃을 피우다', '번성하다'는 뜻과 음악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The Blossom'으로 이름 붙인 양상블 더 블로섬은 지난 2014년 창단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탱고와 재즈를 주제로, 탱고를 대표하는 작곡가 피아졸라와 재즈의 색채를 잘 드러내는 미국 작곡가 불롬, 거슈인의 작품들을 실내악으로 편성, 퍼커셔니스트 조용운과 함께하는 실내악과 타악기의 양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소프라노 오예은 귀국 독창회

일 시 | 6월 25일 금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오예은 010-7713-9954



독보적인 음색과 풍부한 음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프라노 오예은 귀국 독창회.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도독, 하노버극장에서 ABSOLUTE 교류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

음악원을 실기점수 만점으로 졸업한 오예은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Luciana Serra 마스터 클래스, 밀라노 도니제티아카데미 합창지휘과정 등을 수료하며 전문연주자로서의 음악적 견문을 넓혀왔다.

오예은은 현재 연세대학교 성악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학구적인 열정으로 음악적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활발한 음악적 행보를 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페르골레시, 모차르트, 슈트라우스, 풀랑크, 제이크 헤기, 드보르작 등 바로크 시대에서부터 고전, 낭만, 현대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79회 정기연주회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연주회

이기선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Dona Nobis Pacem'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

일 시 | 6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부산시립합창단 이기선 신임 예술감독 취임연주회로 마련되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79회 정기연주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이기선 신임 예술감독의 지휘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원주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이 함께 출연, 베토벤 '합창환상곡'과 본 월리엄스의 칸타타 '우리에게 평화를(Dona Nobis Pacem)'을 들려준다.

- 지휘/이기선 • 피아노/유지수
- 소프라노/박미자 • 바리톤/양희준
- 연주/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합창단, 원주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6회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기념 화평음악회

일 시 | 6월 26일 금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
(문화가 있는날 전석 5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 '화평음악회'.

수석지휘자 김종욱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전 세계를 감동시킨 타악그룹 '공명'의 협연으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

신을 기리고 평화의 염원을 담은 위촉곡 '전쟁과 평화'를 비롯해 '공명'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지난 1997년 결성된 타악그룹 '공명'은 그동안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재구성성을 통해 우리 음악의 다양성과 새로운 소리를 창출하며 국내 및 세계무대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켜왔다.

- 지휘/김종욱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베토벤의 계보

일 시 | 6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K.P.S 010-7742-0556



지난 2010년 라흐마니노프 탄생 200주년 기념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하여 발표해온 K.P.S가 창단 10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기념무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K.P.S는 올해 상, 하반기로 나누어 베토벤의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신현희, 박보경, 고태욱이 출연, 베토벤과 그의 작품세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 하이든, 체르니, 리스트의 음악을 독주와 양상블 연주로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디 오디언스'

일 시 |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만 12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이야기를 다룬 영국 연극계의 화제작 '디 오디언스'를 생생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NT-Live '디 오디언스'.

지난 2013년 2월 15일 런던 웨스트엔드 길구드극장에서 초연된 연극 '디 오디언스'는 영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피터 모건의 희곡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지난 1952년 즉위한 이래 60년 넘도록 왕좌를 지키고 있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와 총리의 비공개 개인 접견을 그린 작품이다. 제목인 '디 오디언스'는 비공개 접견을 일컫는 말로, 무대 위의 모든 대화는 상상해서 연출한 것이지만 사실적인 대사와 연출, 생생한 연기가 관객을 빠져들게 한다.

트리오 피아체 정기연주회 대공(Archduke)

일 시 | 6월 27일 토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순수한 음악에의 열정과 풍부한 음악적 기량으로 관객들에게 피아노 트리오와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트리오 피아체 정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첼리스트 정은혜, 피아니스트 박정희로 구성된 트

리오 피아체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오서너스 아트홀 초청 연주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초청 희망의 음악회, 대구가톨릭대학교 초청 콘서트,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 시리즈, 부산MBC목요음악회 초청연주, 아트뱅크코리아 20주년 기념음악회, 금정수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학구적이고 열정적인 연주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중에도 가장 유명한 '대공'과 스메타나의 유일한 피아노 트리오를 들려준다.

부산시민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영국 디자인의 신화, 앨런 플레처 회고전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

일 시 | 4월 21일(화)~6월 21일(일)
전시실
입장료 | 일반 9천원, 아트전공대학(원)생, 동구 주민 4천5백원, 초중고생, 경로우대 4천원, 미취학아동 2천원, 36개월 미만 유아, 장애인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30-5235



현대적 의미의 그래픽 디자인을 영국에 처음 선보인 디자인계의 신화, 앨런 플레처(Alan Fletcher, 1931~2006)의 국내 최초 회고전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Welcome to my studio!)'.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당대 가장 중요한 디자이너로 평가 받는 그의 디자인 인생을 총망라하여 포춘 매거진(Fortune Magazine), IBM, 런던 로이즈(Lloyds of London),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A) 등과 작업한 무려 500여 점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0 시민뜨락축제

일 시 | 5월 22일(금)~6월 12일(금)
매주 금요일 낮 12:20(6월 5일은 낮 12:00, 우천시 취소) **야외광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매년 봄과 가을,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마련하는 시민 참여형 야외축제 '2020 시민뜨락축제'.

지난해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대극장 개관에 발맞추어 대중 장르 중심의 시민 친화적 공연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부산시민회관은 올해 상, 하반기 '재즈', '포크' 장르로 시민들에게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간다.

일정

6월 5일(금) 골든에이지밴드, 잠바OJ 퀸텟, 김민규 트리오
6월 12일(금) KLAON 클라온, 조아합창단

박승훈 트럼펫 독주회 Baroque or Modern

일 시 | 6월 28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승훈 010-2332-3627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트럼페터 박승훈 독주회.

영남대학교 음악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도미, 퀸즈컬리지-아론 코플랜드 음악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

승훈은 퀸즈컬리지 재학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트럼펫의 고악기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 Clarino Class를 이수했다.

박승훈은 현재 영남대학교 겸임교수로 있으며, 영남대학교 윈드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관악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정승원
- 잉글리쉬 호른/정새롬

2020년 부산시민회관 문화가 있는 날 뮤지컬 명작극장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일 시 | 6월 26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15세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민회관이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마련하는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영화상영회.

'뮤지컬 명작극장'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올해는 '캣츠',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등 뮤지컬 Big4를 비롯해 시

대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명작을 대형 화면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6월에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상영한다. 1950년대 뉴욕의 뒷골목 웨스트 사이드를 무대로, 미국의 인종문제와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뮤지컬로 표현한 작품으로 할리우드 영화사에 금자탑을 세운 영화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학전 어린이 무대 우리는 친구다

일 시 |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00, 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36개월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아이들의 일상을 섬세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려내어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호평 받은 극단 학전의 어린이 뮤지컬 '우리는 친구다'.

극단 학전이 어린이 무대로 내건 첫 번째 작품인 '우리는 친구다'는 독립 그림극단이 1978년 제

작한 어린이뮤지컬 '막스와 밀리(Max und Milli)'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새롭게 번안한 작품으로, 2004년 초연된 후 매년 공연되고 있는 스테디셀러극이다.

- 원작/폴커 루드비히
- 음악/비르거 하이만
- 번안, 연출/김민기
- 편곡, 음악감독/정재일

음악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주년 기념음악회 시작과 끝

일 시 | 6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 20만원, R석 10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무장 010-3074-0366



사회적, 지역적 소외 계층 출신의 재능 있는 연주자들을 발굴, 육성해 음악가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지난 2011년 창단한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9번째 정기 연주회.

크리미아 러시아 국립오케스트라 종신 외국인 지휘자, 프로코피예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종신 외국인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성민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베토벤의 대표작들로 무대를 꾸민다.

6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24일 문화가 있는 날 일반 7천원, 학생 3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3일(제721회)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 시리즈 연주II
부산로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과 수석인 바이올리니스트 정진경, 오근영, 비올리스트 강수이, 첼리스트 김혜지로 구성된 에델 현악사중주단의 무대.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현악사중주 제2번, 대푸가(Grosse Fuge), 현악사중주 제13번 등 세 곡을 들려준다.

10일(제722회) 김은정&조혜란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정, 조혜란의 듀오 무대로, 장마리 르클레르, 루이스 슈포어, 비에나프스키, 모슈코프스키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진성

17일(제723회) 베이스 바리톤 최현욱 독창회

울산 솔리데오글로리아합창단 지휘자이자 인제대학교, 부산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베이스 바리톤 최현욱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가 죽고 난 뒤, 말년의 그의 노래들을 모아서 출판한 노래집 '백조의 노래' 전곡을 들려준다. '백조의 노래'는 요한 자이들, 루드비히 뢰슈타트, 하인리히 하이네 등 세 명의 시인의 시에 곡을 부친, 14편의 가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반주/박정난



24일(제724회) 스트링 아데소 정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 이중은, 비올리스트 김규, 첼리스트 김민승, 이호찬으로 구성된 스트링 아데소의 무대.

솔로리스트로서 탁월한 실력을 가진 연주자들로 구성된 스트링 아데소는 바로크와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다양한 편성으로 연주함으로써 음악의 아름다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해왔다. '아데소(Adesso)'는 이탈리아어로 '지금'이라는 뜻.

영도문화예술회관 재개관 기념공연
절영 Arirang - 영도의 사계절을 노래하다
꽃피는 흰여울

일 시 | 6월 3일 수요일 오후 5: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초대(전화문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의 사계절을 주제로 영도의 아름다움을 국악관현악으로 담아낸 '절영 Arirang'.

'꽃피는 흰여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홍희철이 이끄는,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인 부산국악오케스트라와 국악계의 스타 소리꾼 남상일, 소프라노 김시하, 테너 장진규, 전통타악연희단 풍물마당이 출연, 영도의 봄을 노래한다.

프로그램

절영도의 전경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국악관현악 '아름다운 나라, 박타령, 경복궁타령', 국악관현악 '프론티어' 등 수곡

테너 김성진 제자 음악회

일 시 | 6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클랑예술기획 010-2139-4863



인제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는 테너 김성진의 제자들로 구성된 한울림 앙상블이 마련한 '테너 김성진 제자 음악회'.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인제대학교 출신의 열정 가득한 젊은 성악가들이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도니제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사랑의 묘약', 베르디 '라보엠' 등 유쾌하면서 순수한, 그리고 슬픈 사랑을 노래한 오페라 속 아리아와 중창을 들려준다.

박소진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6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소진 010-6241-2963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독, 바이마르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 및 실내악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박소진 귀국 독주회.

일찍이 중앙음악신문 콩쿠르를 시작으로 국내 다수의 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박소진은 부산대학교 재학시절 부산대학교 정기연주회, 음악춘추영 뮤지컬페스티벌을 비롯해 일본 규슈 신인음악회, 독일에서의 다양한 실내악 무대를 통해 연주 경험을 쌓으며 음악활동의 폭을 넓혀왔다.

프로그램

차이콥스키/사계
하이든/소나타
바흐-부조니/샤콘느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디어 베토벤! 운명

일 시 | 6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대공연장 리모델링 후 문화의 요람지로 재탄생한 금정문화회관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특별한 무대 '디어 베토벤! 운명'.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뛰어난 테크닉적 능력과 다양하고 놀라운 표현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운명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와 환희를 그린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과 신동일의 창작서곡 '금어기행',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1'을 들려준다.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클래식



에 정명훈 지휘의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연주로 한국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후 현재 전문연주자로 영국과 유럽, 한국을 오가며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 신동일/창작서곡 '금어기행'
베토벤/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1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협연/한수진(바이올린)
 - 해설/조희창(음악평론가)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팬들에게 다가가는 정통 오케스트라로 호평받고 있다.

베토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1'을 들려줄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은 지난 2001년 비에니압스키 국제콩쿠르에

15세의 최연소 나이로 참가, 한국인 최초의 2위 수상은 물론 음악평론가상과 폴란드 국영방송 청취자상 등 7개의 부상을 동시에 석권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다. 2004년 18세

에 정명훈 지휘의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연주로 한국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후 현재 전문연주자로 영국과 유럽, 한국을 오가며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일 시 | 6월 10일(수), 24일(수)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2020년 소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획프로그램 '수요상설공연 OnStage'.

6월부터 매월 2, 4주 격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도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문화공작소 빈체로의 '크로스오버 2H1'의

미니 콘서트와 미술과 공연을 접목한 스토리텔링 공연으로, 환경보호를 주제로 제작된 교육마술 '지구야 사랑해'를 선보인다.

문화공작소 빈체로는 '예술은 행위 그 이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슬로건으로 활동 중인 단체로, 이번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박나래, 테너 이창원, 바리톤 윤오건, 피아노 이영희가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로 꾸민다.

M&M 성악연구회 기획공연 한국가곡의 밤 Sires 2. 이수인&김효근 작곡가

일 시 | 6월 13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고봉수 010-3453-554



점점 잊혀져가는 아름다운 우리가곡을 부산에서 부흥시키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 우리가곡 부르기가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한국가곡의 밤'.

매년 두 명의 작곡가를 선정, 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우리가곡을 소개해온 부산 우리가곡 부르기는 올해 작곡가 이수인, 김효근을 선정, 그들의 대표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신정순, 양라운
- 메조소프라노/이민정, 손혜은
- 테너/김화정, 박재화, 박동운
- 바리톤/고정현, 고봉수 • 피아노/김아영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2회 협주곡의 밤

일 시 | 6월 21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5세 이상 입장,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제한 가능)
문 의 |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010-8733-7438



로케 출발한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지난해에 이어 차세대 연주자들과의 협연무대로 마련한다.

- 지휘/이동신
- 바이올린/이수정, 윤경, 민상윤, 변서연, 김형욱
- 첼로/민채윤, 한정민 • 플루트/최세현
- 호른/이주선, 이근원

부산, 경남지역의 우수한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온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2회 협주곡의 밤.

지난 1995년 동아원드오케스트라로 창단한 후 지난해 지금의 이름으로 새

2020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일 시 |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콘서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10-8546-8346, 010-4408-1347



뜻을 같이 하는 부산, 경남지역의 전문음악인들이 의지를 모아 2007년 창단한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마련한 2020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지역의 청소년 유망주들과

함께 협주곡의 밤을 선사한다.

- 지휘/오창록
- 출연/진수빈(구서여중 3학년), 박하은(화정초 등 4학년), 윤태섭(부산예고 2학년), 김민석(동래중 3학년), 이서하(부산예고 1학년), 박수빈(부산예고 2학년), 이재은(부산예고 2학년), 김근우(부산예고 2학년)

제73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바이올린 김다미 with 조이오브스트링스 비발디 & 피아졸라 '사계'

일 시 | 6월 29일 월요일 오후 7:3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 (인터파크 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올해 을숙도 명품콘서트는 고전적인 양식의 클래식 레퍼토리에서부터 현대음악, 그리고 우리 국악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변천사를 조망해본다. 그 첫 번째로,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비발디의 '사계'와 그 영향을 받은 피아졸라 '사계'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바로크 음악에 정통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한국 예술종합학교 이성주 교수가 1997년 창단한 조이 오브스트링스가 출연, 청명하고 맑은 느낌의 비발디 '사계'와 섬세하고 격렬한 피아졸라의 '사계'를 들려준다.

피아노로 듣는 오페라

일 시 | 6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동아 피아노포르테 010-9390-4271



동아대학교 출신의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동아 피아노포르테의 16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로 듣는 오페라'라는 주제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비롯해 오페라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곡을 2 Pianos 8 Hands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차이콥스키/오페라 '에브게니 오네긴' 중에서
글린카/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미라' 서곡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등 수록
• 연주/이현주, 박미숙, 이현진, 김효정, 김은지, 정한술, 김주리, 이아정, 배미정, 김유진, 김민희, 김영숙, 김태린, 김유미, 전숙영, 이양희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조희창의 클래식 레시피 크로스오버 뮤직

일 시 |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1: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 5천원(커피 제공)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금정문화회관이 짝수 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마련하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음악평론가 조희창의 진행으로 열리는 올해 무대는 강이가 함께하는 색다른 형식의 콘서트로, '조희창의 클래식 레시피'란 제목으로 각 회마다 각기 다른 인문학적 주제를 가지고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함께 들려준다. 클래식과 재즈가 만나는 '크로스오버 뮤직'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비틀스의 '렛잇비'부터 베토벤의 '비창'까지 크로스오버 뮤직의 현재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극

작업의 정석

일 시 | 4월 30일(목)-7월 1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매주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인들이 선정한 가장 재미있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 '작업의 정석'. 개봉 당시 230만 관객을 동원한 송일국, 손예진 주연의 동명의 영화를 무대에 옮긴 '작업의 정석'은 개봉 당시 청춘 남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연애 이야기를 '선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독특한 소재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특히 연극 '작업의 정석'은 2012년 대학로에서 초연된 후 영화에서 보여진 작업의 기술뿐 아니라 트렌드에 맞춰 추가된 상황들과 더불어 무대라는 제한적인 장소에서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이디어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 여자의 소설

일 시 | 5월 21일(목)-open run 매주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일-수요일 공연 없음) 효로민락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예매 시 10%, 엄마와 딸 함께 관객 20% 할인)
문 의 | 효로민락소극장 245-5919



왜곡된 유교적 가부장제 속에서 일제강점기와 한국분단의 굴곡진 시대를 살아낸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그 여자의 소설'. 엄인희의 섬세한 리얼리즘극인 '작은 할머니'를 원작으로 한 '그 여자의 소설'은 축척이 허용되던 환경에서 씨받이로 들어온 '작은댁'의 삶을 통해 현재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부장제 문화와 성차별, 가정폭력을 되돌아본다.

무용

제16회 부산국제무용제 BIFD 장학지원사업 AK21국제안무가육성경연

일 시 | 6월 8일 월요일 오후 7:00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관객 공연
문 의 | 부산국제무용제 사무국 868-7881~2



매년 젊은 안무가들에게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되는 'AK(Art Korea) 국제안무가육성경연'. 올해 9월 예정인 부산국제무용제에 앞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객 공연으로 진행되며 네이버 중계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 경연팀
C2 Dance Company 'Bloom'(안무/라세영)
현대무용단 자유 'A Monologue'(안무/박근태)
조군댄스 '날 불러 줘요'(안무/조현배)
경희댄스니머터 '굿모닝 Mr.일동씨'(안무/박재현)
※ 이동하댄스프로젝트 '관계'(안무/이동하)[초청팀]

Site Specific 그곳에 내가 있다

일 시 | 6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울속도문화회관 조각공원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옥련발레단 624-9486

...



(사)부산을 대표하는 발레단 중 하나로, 현재 을속도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련발레단의 특별한 무대 'Site Specific 그곳에 내가 있다'.

지난 1995년 창단 이후 발레 인구가 척박한 부산

공연계에서 20년 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김옥련발레단은 그동안 21세기 발레예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창작 레퍼토리 확보로 폭넓은 관객개발과 함께 부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김옥련발레단은 을속도문화회관 조각공원 내에 설치된 예술작품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특별한 춤판을 선사한다.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발레축제

일 시 | 6월 26일~27일 금-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신무섭발레단, 김용걸댄스씨어터, 이원국발레단, 와이즈발레단, 부산발레시어터, 김옥련발레단과 함께 부산 예고, 브니엘예중고의 발레전공자들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한국 남성 발레의 교과서라 불리는 이원국발레단의 이원국 단장, 부산 발레의 자존심 김옥련발레단의 김옥련 단장과 부산 발레시어터의 정성복 예술감독 외에도 국립발레단 최고의 간판 스타였던 김지영, 전 유니버설발레단 주역무용수 이순현 등 최고의 무용수들이 무대에 선다.

영화

SAC on Screen

영상으로 만나는 늙은 부부 이야기

일 시 | 6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전화예매)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



서울 예술의전당의 우수 예술 콘텐츠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SAC on Screen : 영상으로 만나는 늙은 부부 이야기'.

'첫사랑보다 달콤한 황혼의 끝사랑 이야기'를 그린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는 남편과 사별 후 세 딸을 출가시키고 살아가는 욕쟁이 할머니 이점순과 부인과 사별 후 평생을 양복쟁이로 살며 두 아들을 키운 날라리 할아버지 박동만의 황혼 로맨스를 그리고 있다.

이번 영상은 지난 2019년 9월에 공연된 작품으로, 위상진 작, 연출로 배우 김명곤, 차유경이 출연하여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행사

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좋은 만남' 음악 시대를 이야기하다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2일 강좌 없음)

보수동책방골목 문화관

입장료 | 무료

문의 | 정두환 011-574-0423

...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는 그동안 인문학과 예술을 통섭하는 강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9일(741회) 좋은음악 & 좋은만남 20주년 기념 강연 '화요음악회 20년 이야기'

16일(742회) 화음에서 이야기 하였던 우리 시대의 음악-교향곡

23일(743회) 화음에서 이야기 하였던 우리 시대의 음악-합창

30일(745회) 이 달의 책읽기 '인간이라는 직업'(알렉산드르 줄리앵 저, 임희근 옮김, 문학동네)

온누리 디지털문화원과 함께하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00

시네바움 온누리디지털문화원

입장료 | 1회 1만 5천원

문의 | 시네바움 710-0775, 010-2774-3455

...

2일(화) 정해성의 문화공간 '현대문학 속의 두가지 현실'

• 강사/정해성(문학박사, 문학평론가, 문화공간 Raum-Y 대표)

9일(화) 박창희의 토크콘서트 '길 인문학, 생각을 걷다'

• 강사/박창희(경성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스토리랩 수작 대표)

16일(화) 하이쿠 기행 '안박사와함께하는 하이쿠 읽기'

•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문학평론가,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23일(화) 김해룡의 세익스피어 '햄릿과 맥베스의 메타포(Metaphor)'

• 강사/김해룡(영문학박사, 전 한일장신대 교수)

30일(화) 철학의 명장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 데카르트의 성찰'

• 강사/김남호(울산대 철학과 교수)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연제구청 대회의실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 수강료 15만원

(3개월, 연제구청 강습은 무료)

문의 | 연제구청 평생학습과 665-4506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810-2351~2

...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 공연실황 영상감상회.

프로그램

비에니아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제2번', 비제 '교향곡 다장조', 줄리아니 '기타협주곡 제1번', 랄로 '교향곡 사단조', 들리브 '코펠리아', 라벨 '다프니스와 콜로에',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스메타나 '몰다우 강' 등

6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목요일 오후 1: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 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6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말러 교향곡 시리즈' 콘서트 실황을, 목요일에는 바그너 오페라 '파르지팔' 실황을 오페라바움 대표 심형섭의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4일(목) 2013년 뉴욕메트 실황
11일(목) 2013년 잘츠부르크 실황
18일(목) 2015년 베를린 실황
25일(목) 2016년 바이로이트 실황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강좌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시즌 4

일 시 | 6월 9일(화), 23일(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수강료 2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음악평론가 콰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시즌 네 번째 무대로, 요한 샤인의 '음악 연화', 게오르크 무파트의 '행운의 별', 헨델의 합주협주곡,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

곡 등 독일 바로크 협주곡들을 당시의 예술사적 배경과 함께 알아보고 이들의 주요 작품들을 시대연주를 통해 감상하는 이색체험의 시간도 갖는다.

2020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 예술여행 1_이탈리아 남부

일 시 | 6월 13일(토)-7월 11일(토) 오전 10:00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백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한 성인을 위한 주말 강좌로, 유럽 현지에서 10년간 활동하다 귀국, 현재 문화해설사 및 미술, 음악, 예술강사로 인기 높은 김성민 강사와 함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등 유럽 4개국으로 유럽 예술여행을 떠난다.

제152회 알바트로스 詩낭송콘서트

일 시 | 6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관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김옥균 010-6367-0149

전시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한국현대미술작가조명 III 김종학

일 시 | 3월 6일(금)-6월 21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입장료 | 사전예약(1일 10회, 각 30명)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0-26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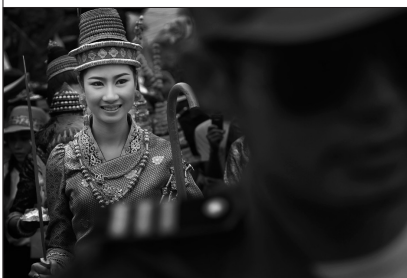
김덕용 작품전 봄-빛과 결

일 시 | 4월 9일(목)-6월 23일(화)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 제 1, 2, 3 전시실
입장료 | 사전예약(1일 10회, 각 30명)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라오스 4박 5일

일 시 | 5월 22일(금)-6월 9일(화)
갤러리 수정
문 의 | 갤러리 수정 464-6333

...



코로나19가 성행하기 전인 올해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라오스를 다녀온 사진작가 6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전시 '라오스 4박 5일'.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시공을 여행했지만 그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사람들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 참여작가/김홍희, 송영희, 신정익, 안영민, 조순미, 최재복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박인화 초대전 이상과 현실의 공존 : 옷칠회화展

일 시 | 6월 1일(월)-6월 20일(토)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타워아트갤러리 특별기획 100인展-한국화, 서양화, 도예

일 시 | 6월 1일(월)-6월 30(화)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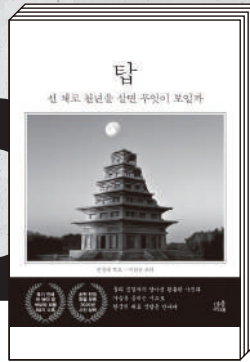




내 아버지 박수근

박인숙 지음 / 삼인
304p / 1만 6천 500원

박수근(1914~1965)과 장욱진(1917~1990) 두 화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책 두 권이 나란히 출간됐다. 두 화가의 장녀들이 아버지의 삶을 돌아본 회고록이다. <내 아버지 박수근>은 박수근미술관 명예관장 박인숙 씨, <내 아버지 장욱진>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명예관장 장경수 씨가 썼다. 박인숙 관장의 기억 속 아버지 박수근은 이사 다닌 동네마다 여심을 출렁이게 한 미남자였다. 노점의 아낙들이 가여워서 똑같은 나물을 사면서도 이쪽에서 한 단, 저쪽에서 한 단씩 사는 아버지를 돌아보는 대목을 읽으면 박수근 화백의 그림 속 여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박인숙 관장은 아버지를 통해 상대방의 숨어 있는 시간과 사연을 보는 인간을 보았다고 고백한다. 장욱진 화백은 애주가였다. 큰딸의 잔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딸의 방문에 술을 오늘부터 안 먹겠다는 의미로 술병과 컵을 거꾸로 그린 그림을 붙여 놓았다. 그러나 어느 날은 '술독에 빠진 아버지' 그림을 다시 붙였다. 아직도 술 마시는 건 진행 중이라는 뜻이었다. 화가 아버지와 딸의 애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일화다. 한국 미술계의 대표화가로만 알고 있다가,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읽고 나면 그림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탐-선 채로 천년을 살면 무엇이 보일까

이달균 글, 손목광 사진 / 마음서재
280p / 1만 8천원

사찰을 방문하면 경내에 서 있는 탐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탐은 불교와 함께 인도에서 전래되었지만 이후 불교사상에 우리의 정신문화, 그리고 한 시대의 문화예술이 집약되며 미(美)의 결정체가 되었다. 이 땅에 세워진 왕조의 흥망과 전쟁의 참상을 지켜본 역사의 증인이기도 하다. 문학과 사진 분야에서 각기 40년 이상 내공을 쌓은 시인 이달균, 사진가 손목광이 함께 천년의 열이 스민 한국의 석탑을 사진과 시조로 재해석해 그 진면목을 색다른 시각으로 조명했다. 두 작가는 2년에 걸쳐 우리 땅 곳곳에 산재한 탐들을 찾아다녔다. 국보와 보물 68기, 지방 문화재 1기, 비지정 문화재 1기 등 모두 70기의 탐을 소개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부터 조선 후기에 중건된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시대의 걸작들을 지역별로 엮었다. 손목광 사진가는 자연과 어우러진 가장 극적인 순간의 탐을 앵글에 담았고, 이달균 시인은 탐에 얹힌 술한 사연과 역사를 전통의 시가인 시조로 노래했다. 천년 세월의 깊이를 담아낸 흑백사진을 보며 탐에 스며든 세월을 풀어낸 시조와 글을 읽으면 긴 시간의 흐름이 느껴진다.



THE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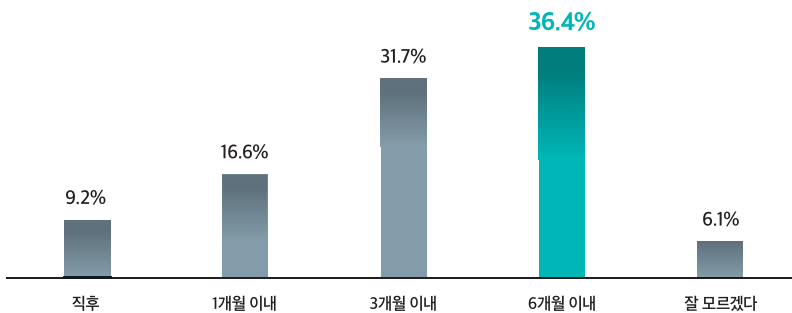
정계행 지음 / 윤이
80p / 1만 8천원

집은 현대인이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공간이다. 누군가는 태어난 집에서 평생을 살기도 하겠지만 빠르게 바뀌는 현대생활의 특성상 쉽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이 한 번쯤은 이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사를 해야 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전체가 재개발이 되는 경우 아쉬움을 뒤로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 지금 부산은 많은 곳에서 재개발이 한창이다. 부산의 원도심은 비좁고 불편한 곳이지만 힘든 시절을 오랫동안 함께 했기에 그곳을 살아낸 주민들에게는 정과 애착이 많은 곳이다. 사진가 정계행은 원도심 재개발지역의 철거 직전인 빈집들을 오랫동안 방문하여 그만의 시선과 느낌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작가는 집에서 '창'에 주목한다. "창은 소통과 관계의 상징이고 바람은 물론 빛과 의미, 심지어 마음이 통하는 통로이다"라고 말한다. 작가는 창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집 안에 남겨진 작은 흔적에서도 마치 탐정처럼 그곳에 숨겨진 추억을 찾아서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의 멘토였던 사진가 채승우는 "그의 사진은 철거지역의 풍경을 설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사진이 어떤 느낌을 담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어떤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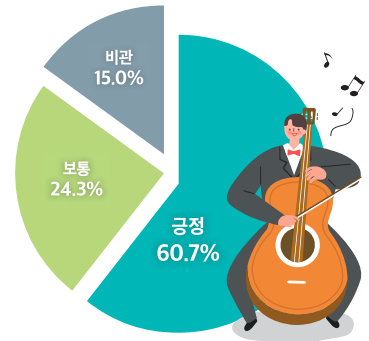
“58%가 3개월 안에, 36%는 6개월 안에 돌아오겠다”

코로나 종식 후 공연 재개에 관객들 조심스러운 반응
온라인 공연 관람 53.3%, 만족도는 58%

(재)부산문화회관, 관람객 대상 2020년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연 재개시 공연 관람 의향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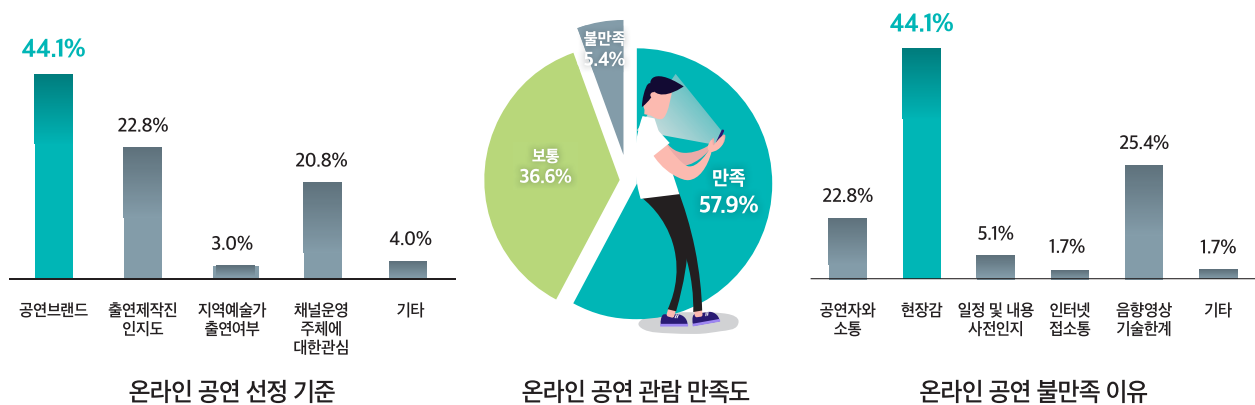
대면 공연 재개에 대한 의견

공연 재개 시 철저한 방역대비가 관건

(재)부산문화회관이 5월 중 실시한 관람객 대상 조사에서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에 따른 공연 재개에 60%가 넘는 응답자들이 '매우 긍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공연 재개 시는 '6개월 이내에 관람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3개월 이내가 31.7%, 1개월 이내가 16.8%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공연이 재개되면 바로 관람하겠다는 의견은 9.2%에 불과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 67.3%가 '감염우려'를 꼽으면서 앞으로 감염 위험을 없애기 위한 철저한 방역 대비가 관건임을 암시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 같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 6개월 후에는 공연관람이 거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현장감을 생명으로 하는 대면 공연 대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한 온라인 공연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인 57.9%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률은 5.4%에 불과했는데, 이들 중 66.1%가 '현장감 및 공연자와의 소통 부족'을 꼽았으며, '음향·영상 등의 기술적인 한계(25.4%)'를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국내외 예술단체의 온라인 공연을 관람한 이는 전체 응답자 중 53.3%로, 평균 '1~3회' 정도 시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관람하고 싶은 공연으로는 응답자 대다수가 '관심 장르의 공연(46%)', '해외유명작품(35.1%)'을 꼽았으며, 공연을 선정할 때는 '공연브랜드(44.1%)'와 '출연·제작진 인지도(28.2%)'를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공연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코로나 사태 종식 전까지 지속'된다가 44.1%,



‘일시적 현상’이다가 26.6%로 나타난 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온라인 공연의 콘텐츠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24.5%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으로도 현장감을 생명으로 하는 대면 공연은 여전히 대세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바뀌는 공연환경에 대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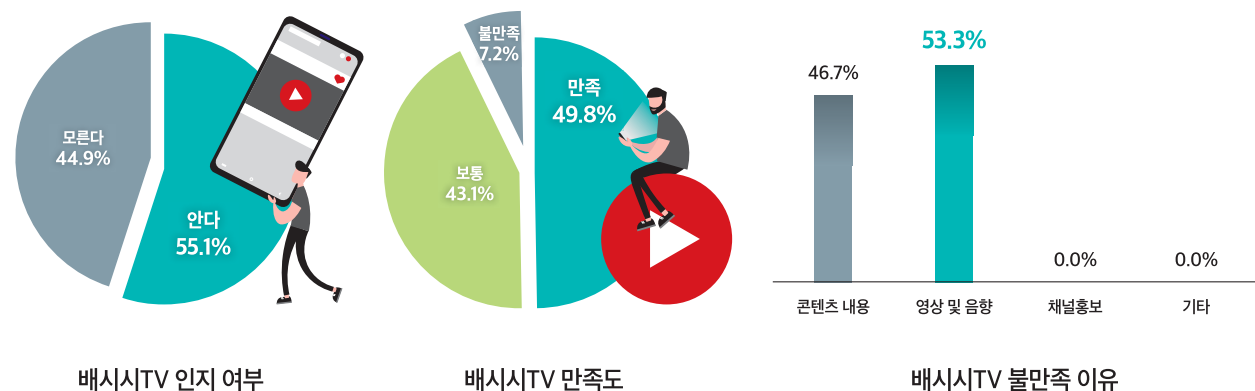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배시시TV 대체로 만족

(재)부산문화회관이 휴관기간 동안 진행한 유튜브 공연 스트리밍 ‘배시시TV’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가 55.1%로, 시청 만족도에 있어서도 응답자들 중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7.2% 응답자만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영상 및 음향 기술(53.3%)’과 ‘콘텐츠 내용(46.7%)’을 지적했다. 온라인 아카데미 수업 수요 조사에서는 41.4%의 응답자들이 타 기관의 온라인 영상 강연 등을 관람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문화예술 교양(47.1%)’, ‘문화예술실

기(19.1%)’ 등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련된 수업을 가장 많이 청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앞으로 온라인 아카데미 수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가 계획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무료회원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진행

해당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이후 공연 재개를 앞두고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380명의 유·무료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됐다. (재)부산문화회관 이용관 대표는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참여의사와 문화회관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온라인 공연의 경우 콘텐츠의 경쟁력과 기술 수준이 관건이며, 대면공연에서는 감염 위험을 없애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관객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공연 재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방역 지침 준수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그동안 임시휴관이었던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운영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재)부산문화회관은 방역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재개관에 앞서 객석 거리두기로 무대와 객석 간격을 2m로 유지하고,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씩 띄어 앉을 수 있도록 배치한 후 예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 충분한 환기와 더불어 객석, 무대 등 공연장 시설은 반드시 소독하고 공연장 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문진표를 작성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밖에 공연장에서 이동하거나 줄을 설 때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 스티커를 붙이고 실내 휴게실, 카페 등 다중이용공간에 이용자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임시휴관 기간동안 무관객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되던 (재)부산문화회관 기획 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은 5월 21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를 시작으로 관객과 직접 만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기한 휴강에 들어갔던 문화예술아카데미도 5월 4일 특강에 이어 5월 18일부터 2020년도 2분기 수강생 모집과 함께 6월 1일부터 정규강좌를 재개한다.



부산시립무용단 區문화회관 특별순회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날 잡아봐라~'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부산시립무용단이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 6월 한달간 區 문화회관을 순회하며 우리 춤의 다양한 멋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특히 區문화회관 순회공연은 관객들을 직접 찾아가 관객과 우리 춤으로 소통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무대의 장으로, 올해는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와 판소리 '수궁가'를 엮어 색다른 스토리와 춤으로 재구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날 잡아봐라~'를 선사한다. 이번 區문화회관 순회공연은 6월 16일 영도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19일 을숙도문화회관, 25일 동래문화회관에서 무료로 열린다.

한편, 이번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과 각 區문화회관의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된다.

예술이 전하는 위안, 따뜻한 희망의 릴레이

배시시콘서트(BSCC Concert) On Live 성황리에 종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했던 (재)부산문화회관의 온라인 생방송 '배시시콘서트(BSCC Concert) On Live'가 5월 14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배시시콘서트(BSCC Concert) On Live'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임시휴관에 들어갔던 (재)부산문화회관이 휴관이 길어지면서 지역문화공연과 관련행사들이 잇따라 연기 혹은 취소되자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지 않고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부산시립예술단,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함께 마련한 온라인 방송으로, 시즌 1, 시즌 2 무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예술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선사했다.

'배시시콘서트(BSCC Concert) On Live'는 모두 무관객 공연으로 진행했으며, 공연실황은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혹은 녹화중계로 방송됐다. 특히 라이브 방송 후에도 유튜브를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를 통해 상시 관람할 수 있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초까지 연장되면서 4월과 5월 초에 예정되었던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과 부산시립예술단 공연도 무관객 공연 온라인 생중계로 대체되어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부산시립예술단은 휴관기간 동안 부산시립예술단 TV를 통해 지난 공연 다시보기 서비스인 '명품 무대'를 비롯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On Live 무대', 부산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영상 '힘내라 부산 무대' 등 대시민 온라인 문화예술콘텐츠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부산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체휼의 이야기' 객원연출 모집

☑ 공연 개요

- 공연명칭 : 부산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체휼의 이야기'
- 일시 및 장소 : 2020. 11. 12.(목) ~ 14.(토) 평일 19:30,
주말 1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주최/주관 : (재)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립예술단
- 제작 : 부산시립극단
- 작품 : 안톤 파블로비치 체휼의 단편소설 중 작품 선택

☑ 객원연출 모집

- 모집 인원 : 3~5명
- 응시자격 : ① 연극 연출 유경험자
② 부산광역시 활동증명 가능한 자
(최근 5년간 부산 내에서 연출한 작품 필수)
- 대본제출일 : 2020. 8. 31.(월) 17:00까지
*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지원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5. 14.(목)~6.9(화)
17:00까지
- 심사발표 : 2020. 6. 19.(금)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접수방법
 - 1) 첨부된 양식을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증빙서류는 지원서 접수 시 사진 및 파일로 우선 제출, 필요 시 원본 제출
 -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만 첨부(본인 확인용)
 - 3) 작성 후 0308side@bscc.or.kr 로 이메일 제출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 부산시립극단 ☎ 051-607-3123 / 3125

부산문화회관, 시립예술단 초등학생들을 위한 문화 예술공연 풍성



2020년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지역 7개 문화예술기관이 진행하는 초등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등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2월 14일 '2020 초등 문화예술활동 지원협약'을 맺고 부산 지역 초등학생들의 문화 현장 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6월 본격적인 등교를 앞두고 부산시립예술단에서는 7월 2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이 함께 선보이는 '재밋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을 시작으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옛보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공연 '얼씨구' 등 총 3건의 공연이 부산문화회관 중극장과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얼씨구'는 전통국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미있는 국악무대를 목표로 기획된 무대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가 사회, 해설자로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명을 선사할 예정이다.

'재밋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은 초등학생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곡과 뮤지컬 넘버, OST, 동요 등을 선곡한 눈높이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이명근 수석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공연은 12월까지 모두 10회 진행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옛보기는 9월 11일과 12월 22일 예정된 정기공연을 오전에 미리 만날 수 있는 무대로 9월에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한 베토벤 명곡, 12월에는 미국 작곡가 곡 중 청소년 수준에 맞는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밖에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외에도 (재)부산문화회관이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히 기획한 어린이 뮤지컬 '프랭키와 친구들'(7월 1일~8월 2일,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을 시작으로, 극단 학전과 김민기 연출의 스테디셀러 가족극 '우리는 친구다'(7월 3일~4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방귀쟁이 며느리'(8월 27일~10월 25일,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최우수작 '토장군을 찾아라'(9월 3일~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세 마리 뱀의 우정이야기를 담은 '8시에 만나'(11월 10일~12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등 5개 기획 프로그램이 100여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올해가 초등학생 공연관람 지원 사업 첫해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초등학생들이 취지에 맞는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만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재)부산문화회관 2020년도 2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개강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교육전시팀
607-6000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기한 휴강에 들어갔던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가 최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도 2분기 수강생 모집과 함께 6월 1일부터 강좌를 재개한다.

그동안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차별화된 강좌로 수강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온 인문학·교양강좌는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보다 더 다양한 장르, 주제로 수강생들과 만난다. 우선 매회 강좌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음악평론가 이용숙은 '오페라하우스 인문학'으로 다시 돌아온다. 바로크시대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오페라하우스들에서 시연된 명작과 작품의 역사적 배경, 인문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오페라하우스 시대를 앞두고 있는 부산 시민들에게 오페라와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작품 속에 담긴 미술사 속 핫이슈를 중심으로 화가와 그 주변의 사회, 역사적 이야기들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미술평론가 하나영의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와 미술평론가 장원의 시대별 미술사 강좌 두 번째 시간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그림을 통해 음악을 이해하고 20세기 이후 더욱 활발해진 회화와 음악의 융합을 살펴보는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이장직 총괄연구원의 '음악을 보고 그림을 듣는다', 올해로 탄생 250주년을 맞은 베토벤 음악을 연대순으로 압축해 그의 삶과 음악을 따라가는 음악칼럼니스트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등 장르별 흥미로운 강좌들도 움츠려있던 시민들의 인문학적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북아티스트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김효은 작가의 톡톡튀는 미술실기 '일러스트 드로잉:나만의 정원', 'Creative 북바인딩:가족앨범', 서양화가 김은주의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사진작가 뿌리야김의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 등 이론과 실기를 통해 전문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강좌도 지난 강좌에 이어 계속된다.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실기강좌는 올해부터 국악, 연극까지 장르를 넓혀 확대한다. 국악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돕기위한 '얼썬! 흥미로운 국악이야기', 그리고 누구나 한번쯤 꿈꿔본 연기에 대한 남다른 경험을 갖게 될 성인 연극반 '마음으로부터 연극!' 강좌가 새롭게 신설되어 수강생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아카데미 수강신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s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극장장의 손 편지 ①⑥

공연장에 언제쯤이면 오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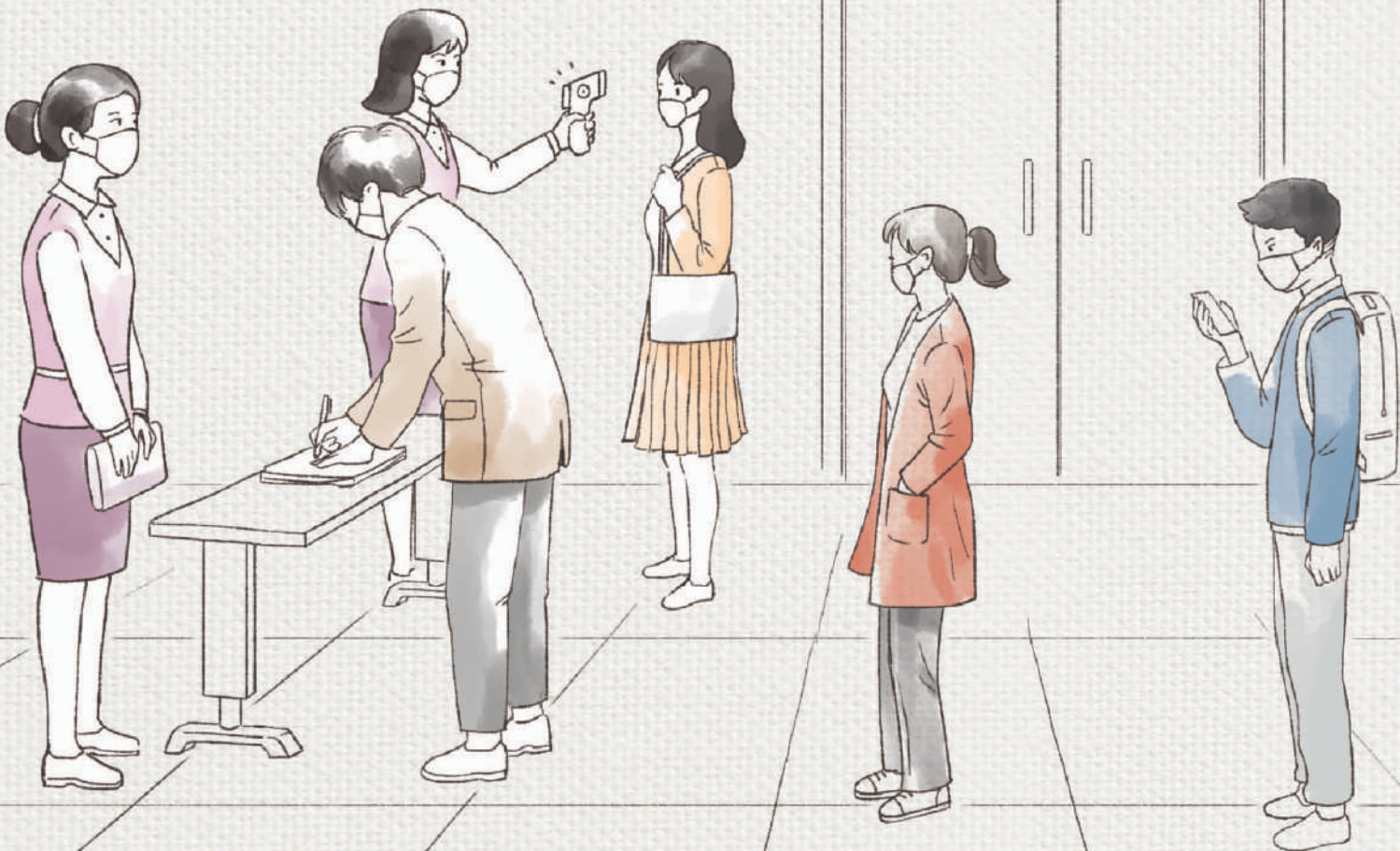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코로나19 이후의 관객의향 최초로 조사

우리 관객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되면 바로 공연장에 오실까요?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재)부산문화회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어 가던 지난 달, 기존 관객들(응답자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조사는 전국에서 처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은 크게 1) 코로나 이후에 공연장에 다시 오는 시점과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2) 코로나19 기간 중 온라인 공연을 본 경험과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앞으로 부산문화회관뿐만 아니라 여타 공공 공연장 운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리라 믿습니다. 우선,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장에 다시 오는 시기는?

설문조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관람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3개월 이내가 뒤를 이었고,



바로 관람하겠다는 응답은 소수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반응이라고 봐야겠지요. 관람 시기를 늦추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감염 우려’라는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라는 애국자(?)들도 꽤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의견은 오히려 소수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감염 위험을 제거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해 줄 경우 6개월 정도 지나면 공연관람이 거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긍정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조짐이 있습니다. 5~6월 대면공연을 재개하면서 ‘거리두기 객석(좌석 간 일정 간격을 띄우고 착석)’ 운영을 위해, 기존 예매를 일괄 취소하고 티켓 재오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예매자들의 좌석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취소·환불 후 재예매를 요청드려야 했던 것이지요. 진행하면서도 티켓 재오픈에 따른 기존 예매자들의 이탈로 예매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걱정했지만,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예매 건수가 늘어나는 공연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온라인 공연 경험

코로나19로 시작된 저희 부산문화회관의 온라인 공연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세계적인 브랜드의 공연을 본 사람들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은 만족도입니다. 소수의 불만족으로 응답한 이들 중 3분의 2는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점과 공연자와 관객과의 소통 부재를 아쉬워했으며, 4명 중 1명은 “음향과 영상 등 기술의 한계를 느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온라인 공연의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는 코로나 사태 종식 전까지는 지속되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응답자가 대부분인 반면, 이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은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현장감을

생명으로 하는 공연의 온라인화는 대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물론 평소 공연을 많이 보는 관객들이니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공연의 평가와 관련해 유사한 조사가 서울에서도 있었습니다. 경희대 교수 겸 피아니스트가 진행한 ‘온라인 공연감상 현황조사’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 208명과 음악애호가 150명이 이 설문 참여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잡념 없이 온라인 공연에 몰입한 시간’에 대한 질문에 ‘20분’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짧은 집중력’ 외에도 ‘음향 등 기술적 문제’와 ‘복잡한 일상’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이는 앞으로 온라인 공연 제작에 중요한 시사점이 되리라 봅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들이 “생동감이 덜했다”,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라이브의 경험이 더 그리워졌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온·오프라인 공연이 병행된다면 현장공연을 보겠다는 비율 역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하네요. ‘작품에 관한 관심이 생겼다’거나 ‘코로나19가 끝나면 관련 공연 실황을 직접 찾아갈 것이다’라는 등 온라인으로 확장된 관심이 실제 공연 관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조사결과가 가르쳐 주는 것들

(재)부산문화회관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예술과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를 온라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관련 문항도 저희 설문조사에 추가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는 유료수강 의사(35.4%)보다는 무료수강 의사(39.1%)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25.6%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온라인 아카데미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좌의 수준이나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저희 운영자들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객참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6개월은 족히 걸릴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물론 감염 위험으로부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역이나 코로나로 인해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접근 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붙어야 하겠지요. 둘째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보는 이들의 요구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유니크한 콘텐츠는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지역예술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설문조사처럼 고객들께 수시로 물어보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고객 친화적 운영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호에도 썼듯이, 고객의 목소리를 더 자주 경청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운영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공연장 운영을 더 고민해야겠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협연자 모집 안내



공연 개요 가. 공연명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8회 정기연주회
나. 일시 및 장소 : 2020년 11월 10일(화)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모집 개요 ▷ 모집부문 : 위 공연에 출연할 바이올린 협연자
▷ 응시자격 - 부산 출신 또는 부산에서 활동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
- 4년제 음악대학(학과 및 학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연령제한 없음)

전형 개요 ▷ 전형일시 : 2020년 9월 1일(화) ▶ 세부일정 8월 28일(금) 홈페이지 공지
▷ 전형장소 :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응시곡목 : 모차르트 /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中 제1악장 재현부 전까지
(연습악보 40~143마디) 및 카덴차(무반주 & 암보로 진행)
※ 카덴차 버전 제한은 없음 ※ 최종합격자는 협주곡 전악장 연주

합격자 선정 ▷ 부산시립교향악단 전단원(상임) 심사 ▷ 최고득점자 1명 선발
※ 단, 심사 결과에 준하여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소정 양식 다운로드, 작성 / 사진부착,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응시자격 증명 서류 ▶ 아래 1), 2)번 두가지 모두 제출
1) 4년제 학사 졸업 증명서 또는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증명서
※ 단, 부산 소재 학교일 경우 아래 2)번 항목 불필요
2) 아래 中 택 1 • 주민등록등본(초본) ▶ 부산 거주 또는 출신 증명
• 졸업 증명서 ▶ 부산 소재 학교 출신 증명
• 재학(재직) 증명서 ▶ 부산 소재 대학원(기관) 또는 재학(재직) 증명
• 경력 증명서 ▶ 부산 소재 기관 근무 경력 증명
※ DVD, CD 등의 연주 자료는 일체 받지 않음
▷ 제출기간 : 2020년 8월 17일(월) 09:00~8월 26일(수) 17:00까지 도착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장소 :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2층 시립예술단 사무국 교향악단 담당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1)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교향악단 담당 ☎ 607-3111~3)

2020년도 2분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5. 18(월)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방문, 전화, 온라인 www.bscc.or.kr (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문의: 051)607-6000

인문학 · 교양					
얼썬! 흥미로운 국악이야기	6. 1~8.10	매주 월(10회)	14:00-16:00	강의실	12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초급)	6. 1~8.10	매주 월(10회)	10:30-12:30	아트랩	180,000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응용)	6. 1~8.10	매주 월(10회)	14:00-16:00	아트랩	180,000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6. 2~8.18	매주 화(10회)	14:00-16:00	강의실	200,000
일러스트 드로잉 : 나만의 정원	6. 9~8.18	매주 화(10회)	19:00-21:00	미술실	180,000
이용숙의 오페라하우스 인문학	6. 3~8.19	매주 수(10회)	14:00-16:00	강의실	200,000
Creative 북바인딩 : 가족 앨범	6.10~8.19	매주 수(10회)	19:00-21:00	미술실	180,000
음악을 보고 그림을 듣는다	6.10~8.19	매주 수(10회)	19:00-21:00	강의실	150,000
원더풀 컬러풀 미술사 : 미술사의 핫이슈	6. 4~8.20	매주 목(10회)	14:00-16:00	강의실	150,000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 근대미술사	6.13~8.22	매주 토(10회)	14:00-16:00	강의실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응용)	6.13~8.22	매주 토(10회)	10:00-12:00	강의실	150,000
하이퀄리티를 위한 사진학(초급)	6.13~8.22	매주 토(10회)	15:00-17:00	강의실	150,000
실기(악기 · 무용 · 연극)					
마음으로부터 연극!	6. 1~8.10	매주 월(10회)	19:00-21:00	연습실	120,000
사물놀이	6. 9~8.18	매주 화(10회)	17:30-19:00	연습실	120,000
지휘자 클래스	6.10~8.19	매주 수(10회)	19:00-21:00	합창단연습실	360,000
춤추는 현대무용	6. 4~8.13	매주 목(10회)	19:30-20:50	연습실	100,000
거문고 A	6. 1~8.10	매주 월(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거문고 B	6. 3~8.12	매주 수(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해금(초급)	6. 4~8.13	매주 목(10회)	17:30-19:00	레슨실	120,000
해금(중급 A)	6. 9~8.18	매주 화(10회)	17:30-19:00	레슨실	120,000
해금(중급 B)	6. 9~8.18	매주 화(10회)	19:30-21:00	레슨실	120,000
가야금 A	6. 9~8.18	매주 화(10회)	17:30-19:00	레슨실	140,000
가야금 B	6. 9~8.18	매주 화(10회)	19:30-21:00	레슨실	140,000
라인댄스(초급)	6. 9~8.18	매주 화(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라인댄스(중급)	6. 4~8.13	매주 목(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한영숙류 태평무)	6. 9~8.18	매주 화(10회)	15:00-16:2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기초)	6.10~8.19	매주 수(10회)	15:00-16:20	연습실	100,000
한국무용(강태홍류 부채산조)	6. 4~8.13	매주 목(10회)	15:00-16:20	연습실	100,000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	6.10~8.19	매주 수(10회)	10:30-11:50	연습실	100,000
프리미엄 발레	6. 5~8.14	매주 금(10회)	14:00-15:20	연습실	100,000
클래식기타(입문)	6. 5~8.14	매주 금(10회)	10:30-12:00	레슨실	120,000
클래식기타(중급)	6. 5~8.14	매주 금(10회)	14:00-15:30	레슨실	120,000
클래식기타(초급)	6. 5~8.14	매주 금(10회)	16:00-17:30	레슨실	120,000
첼로 A	6.13~8.22	매주 토(10회)	11:00-12:30	레슨실	240,000
첼로 B	6.13~8.22	매주 토(10회)	13:00-14:30	레슨실	240,000

※ 강좌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2020-21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연극/뮤지컬

착한 여우들의 유쾌한 반란!

<여자만세 2>

시민 | 소극장 5.28.(목) 3:00pm,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 패키지 제외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햄릿>

문화 | 중극장 5.30.(토) 3:00pm
All Seats 20,000원



2020년 창작뮤지컬 최고의 화제작

뮤지컬 <팬레터>

문화 | 대극장 6.12.(금)~6.14.(일)
금 7:30pm 토 3:00pm, 7:00pm 일 3:00pm
R 88,000원 S 66,000원
* 패키지 제외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디 오디언스>

문화 | 중극장 6.27.(토) 3:00pm
All Seats 20,000원



'그래, 삶이란 이런 거지'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시민 | 소극장 7.31.(금)~8.1.(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연극계 황금곰비 김광보 연출 & 고연옥 작가 신작

<결혼> 부산문화회관-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

문화 | 중극장 9.18.(금)~9.20.(일) 금 7:30pm
토일 3:00pm /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셰익스피어의 열두밤 이야기

<십이야(十二夜)>

시민 | 소극장 9.26.(토)~9.27.(일)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발레 / 무용

원작자 '셰익스피어'가 나타났다!

서울발레시어터 <한여름 밤의 꿈>

문화 | 중극장 7.25.(토)~7.26.(일)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거대한 스윙재즈 클럽의 열기 속으로!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문화 | 대극장 8.28.(금)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온미 컴퍼니 <A-드래곤>

문화 | 중극장 12.4.(금)~12.5.(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클래식

프렌치 베토벤이언의 베토벤 소나타

프레데리크 기 리사이틀 [취소]

문화 | 챔버홀 6.16.(화) 7:30pm
All Seats 30,000원



آمد적인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시민 | 대극장 7.15.(수) 7:30pm
R 110,000원 S 80,000원 A 50,000원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베토벤 스페셜리스트의 귀환
루돌프 부호빈더 & 루체르 페스티벌 스트링스

문화 | 대극장 9.25.(금) 7:30pm
V 120,000원 R 90,000원 S 60,000원 A 30,000원



오스모 벤스케 지휘 x 이지운 협연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 내셔널 투어

문화 | 대극장 10.30.(금) 7:3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Adieu 2020 & Happy New Year 2021

2020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31.(목) 10: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패키지 제외



새해를 여는 천상의 소리

빈 소년 합창단 2021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1.1.23.(토)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10,000원 * 패키지 제외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문화 | 중극장 2021.2.21.(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10,000원



마티네 콘서트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나의 기타 이야기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문화 | 중극장 4.24.(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동요, 클래식이 되다 <피아니스트 박종화>

문화 | 중극장 5.29.(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바이올린 로망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문화 | 중극장 7.31.(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드라마틱 플루트 <플루티스트 필립 윤트>

문화 | 중극장 8.28.(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베토벤, 영웅이 되다 <피아니스트 홍민수>

문화 | 중극장 10.30.(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재즈가 되다 <바리톤 이응광>
 문화 | 중극장 12.8.(화) 11:00am
 All Seats 10,000원



오페라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
2020 부산오페라 Week * 패키지 제외
 문화 | 대극장 & 중극장 10.10.(토)~10.18.(일)
 평일 7:30pm 주말 및 공휴일 5:0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SCC 우수레퍼토리 앵콜공연
오페라 <리골레토> * 패키지 제외
 문화 | 대극장 2021.2.26.(금)~2.27.(토) 7:3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국악 / 창극

세계를 누비는 컨템포러리 국악 그룹
블랙스트링 ▶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시민 | 소극장 4.23.(목) 목 7:3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원작보다 강하다!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찢고 옹녀>
 문화 | 대극장 7.17.(금)~7.18.(토) 금 7:30pm 토 3:0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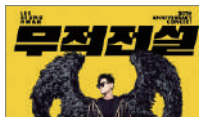


킹스턴 루디스카 x 연희컴퍼니유희
유희스카
 문화 | 중극장 11.5.(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콘서트 / 탱고

무적전설
이승환 30주년 콘서트 * 패키지 제외
 시민 | 대극장 7.18.(토)~7.19.(일) 토 6:00pm 일 5:00pm
 V 154,000원 R 132,000원 S 110,000원 A 99,000원



감동을 넘어서는 마법의 시간
2020 디즈니 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29.(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피아졸라 탱고 앙상블의 진수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콘서트
 문화 | 중극장 9.24.(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Hopeful Tomorrow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패키지 제외
 문화 | 대극장 11.2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 20,000원



“응답하라 1988” 드라마 OST 오리지널 밴드
<동물원 콘서트>
 시민 | 소극장 12.4.(금)~12.5.(토) 금 7:30pm 토 5:00pm
 R 55,000원 S 44,000원 * 패키지 제외



아트서커스

한 편의 완벽한 서커스 드라마
세븐 핑커스 <여행자> [최소]
 문화 | 대극장 6.12.(금)~6.13.(토) 금 7:30pm 토 3:00pm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지역프로젝트

한여름밤의 실내악 축제
(제)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챔버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 & 챔버홀 8.15.(토)~8.29.(토)
 평일 7:30pm 주말 및 공휴일 5:00pm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최우수작
<토장군을 찾아라>
 문화 | 중극장 9.3.(목)~9.5.(토)
 목·금 10:30am, 1:30pm 토 11:00am, 2:00pm
 R 30,000원 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문화재단 공동기획
2020 부산 브랜드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문화 | 중극장 11.14.(토)~11.15.(일) 3:00pm
 R 30,000원 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문화재단 공동기획
2020 부산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사업 선정작
 문화 | 중극장 11.28.(토)~11.29.(일) 3:00pm
 R 30,000원 S 20,000원 * 패키지 제외



어린이 / 가족

범인을 찾아라!
<프랭키와 친구들>
 문화 | 사랑채 7.1.(수)~8.2.(일) 11:00am
 (월·수 공연없음)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극단 학전 & 김민기 연출의 스테디셀러 가족극
<우리는 친구다>
 시민 | 소극장 7.3.(금)~7.4.(토) 금 10:00am
 토 11:00am, 3:00pm / R 30,000원 S 20,000원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방귀쟁이 며느리>
 문화 | 사랑채 8.27.(목)~10.25.(일) 11:00am
 (월·수 공연없음)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EBS 번개맨 20주년 기념대작
뮤지컬 <번개맨>
 시민 | 대극장 9.12.(토)~9.13.(일)
 토 11:00am, 2:00pm, 4:30pm 일 11:00am, 2:00pm
 R 60,000원 S 50,000원 * 패키지 제외



세 마리 펭귄의 우정 이야기
<8시에 만나>
 문화 | 사랑채 11.10.(화)~12.13.(일) 11:00am
 (월·수 공연없음)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시립예술단 2020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교향악단 _ 정기연주회

제558회 정기연주회 New Year's Concert 2020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6.(목)~1.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59회 정기연주회 French Nuance 프랑스식 뉘앙스 [잠정연기]

문화 | 대극장 2.14.(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0회 정기연주회 Bohemian Groove 보헤미안 [잠정연기]

문화 | 대극장 3.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1회 정기연주회 Baroque to Classical 바로크에서 고전까지 [잠정연기]

문화 | 중극장 3.2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2회 정기연주회 Cheers! 짹! [잠정연기]

문화 | 대극장 4.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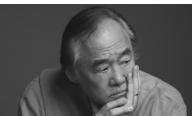
제563회 정기연주회 모호함과 확고함 [취소]

문화 | 중극장 5.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공연인 '미완성음악회'로 대체



제564회 정기연주회 BPO meets Kun-Woo Paik 거장의 레제로

문화 | 대극장 6.19.(금)~20.(토) 금 7:30pm 토 5:0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5회 정기연주회 O Sole Mio 이탈리아 음악휴가

문화 | 대극장 7.21.(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6회 정기연주회 Again, R.Strauss! I 부산시향의 슈트라우스 어게인! I

문화 | 대극장 9.23.(수)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7회 정기연주회 unique 개성

문화 | 대극장 10.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8회 정기연주회 Frame 틀

문화 | 중극장 11.10.(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9회 정기연주회 Shostakovich's 7th Symphony 부산시향의 쇼스타코비치

문화 | 대극장 11.24.(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70회 정기연주회 Beethoven's 250th Birthday in Busan 송년음악회 - 해피벌스데이, 루트비히!

문화 | 대극장 12.17.(목)~12.18.(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교향악단 _ 기획음악회

BPO Thanks Concert 부산시향의 感謝 감사 [취소]

문화 | 중극장 2.24.(월)~2.25.(화) 2:00pm
All Seats 5,000원



BPO Open Door Concert 부산시향의 나눔 [취소]

문화 | 중극장 3.26.(목) 11:00am, 4:00pm
All Seats 5,000원



BPO Chamber Music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문화 | 챔버홀 4.29.(수) 7:30pm
All Seats 10,000원
▶ 무관객 공연 온라인 생중계



BPO Family Day
부산시향의 가족음악회

문화 | 대극장 5.29.(금)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Open Rehearsal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문화 | 중극장 6.17.(수) 7:30pm
All Seats 5,000원



BPO Romantic Night
부산시향의 로망스

문화 | 중극장 7.7.(화)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Youth Concert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 친구

문화 | 대극장 8.11.(화) 3:30,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Kids Concert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중극장 9.10.(목)~9.11.(금) 11:00am
All Seats 5,000원



BPO & Young Solists
제7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10.8.(목) 7:30pm
All Seats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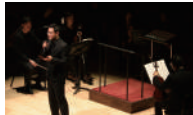
BPO Chamber Music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문화 | 챔버홀 10.30.(금)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Night Lab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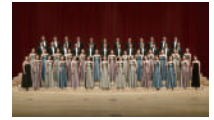
문화 | 중극장 12.9.(수) 9:00pm
All Seats 10,000원



합창단 _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현대합창시리즈 II
현대 합창 거장들의 합창세계 [취소]

문화 | 대극장 3.31.(화) 7:30pm
All Seats 10,000원



제179회 정기연주회 및 호국의 달 기념 연주회
이기선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

문화 | 대극장 6.2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제181회 정기연주회
최석태 부산 칸타타 & 창작합창곡

문화 | 대극장 9.22.(화) 7:30pm
All Seats 10,000원



제182회 정기연주회
2020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17.(목)~12.18.(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합창단 _ 특별연주회

전래동요에 의한 가족 음악극
옛날 옛적에 [취소]

문화 | 중극장 5.21.(목)~5.2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합창으로 만나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문화 | 중극장 5.2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가요합창음악회 2020 Summer Fantasy
김동률과 이적(카니발) 편

문화 | 대극장 7.23.(목) 8:00pm
R 20,000원 S 10,000원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10.19.(월)~10.22.(목) 6:00pm
All Seats 무료



청소년을 위한
힐링콘서트 [취소]

문화 | 대극장 11.20.(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무용단 _ 정기공연

제81회 정기공연
**수석안무자 선정공연 2
<Odyssea FE2020b>**

문화 | 대극장 7.30.(목)~7.31.(금) 7:30pm
All Seats 10,000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제82회 정기공연
예술감독 취임공연

문화 | 대극장 11.5.(목)~11.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 2013년 무용공연 작

무용단 _ 특별공연

특별공연
2020 우리춤 산책

문화 | 사랑채 5.7.(목)~5.8.(금) 7:30pm
All Seats 5,000원
▶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특별공연
2020 춤추는 동화 [취소]

문화 | 사랑채 5.11.(월)~5.22.(금)(토, 일 제외) 11:00am
※단체공연에 한함



특별공연
2020 안무가 양성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문화 | 중극장 8.20.(목) 7:30pm
All Seats 5,000원



국악관현악단 _ 정기연주회

제205회 정기연주회
**중견 해금연주자를 위한
협연의 밤 시리즈 I [취소]**

문화 | 대극장 2.25.(화) 7:30pm
R 10,000원, S 5,000원



제205회 정기연주회
김종욱 제9대 수석지휘자 취임 연주회

문화 | 대극장 5.30.(토) 5:00pm
R 10,000원, S 5,000원



제206회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기념 '화평음악회'

문화 | 중극장 6.26.(금) 8:00pm
R 10,000원, S 5,000원



제207회 정기연주회
창작실내악

문화 | 챔버홀 11.25.(수) 8:00pm
All Seats 10,000원



제208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23.(수) 8:00pm
R 10,000원, S 5,000원



국악관현악단 _ 특별연주회

특별연주회
신년다례연(新年茶礼宴)

문화 | 대극장 2.4.(화)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雅樂의 밤

문화 | 챔버홀 5.21.(목) 8:00pm
All Seats 10,000원



특별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문화 | 중극장 7.14.(화) 8:0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문화 | 대극장 8.12.(수) 8:0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제46회 청소년 협연의 밤

문화 | 중극장 9.25.(금) 8:00pm
All Seats 2,000원



특별연주회
'풍류' 명가·명창·명무의 무대

문화 | 중극장 10.20.(화) 8:00pm
R 10,000원, S 5,000원



극단 _ 정기공연

제67회 정기공연

벚꽃동산 [취소]

시민 | 소극장 4.6.(월)~4.11.(토)
평일 7:30pm / 주말 5:00pm
All Seats 10,000원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문화 | 대극장 7.3.(금)~7.12.(일)
평일 7:30pm / 주말 5:00pm
All Seats 20,000원



제69회 정기공연

체홉의 이야기

시민 | 소극장 11.12.(목)~11.14.(토)
평일 7:30pm / 주말 5:00pm
All Seats 10,000원



극단 _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제1기

뮤지컬 '피터팬' [취소]

금정 | 대공연장 8.22.(토)~8.23.(일) 5:0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공연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취소]

문화 | 사랑채 4.16.(목)~5.4.(월)
평일 11:00am / 주말 3:00pm
5.5.(화) 11:00am, 2: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_ 정기연주회

제63회 정기연주회

라흐마니노프 [취소]

문화 | 대극장 4.3.(금) 7:30pm
All Seats 2,000원



제64회 정기연주회

Never Ending Story(주제: 이야기)

문화 | 대극장 9.11.(금) 7:30pm
All Seats 2,000원



제65회 정기연주회

2020 송년음악회 'Travel to America'

문화 | 대극장 12.22.(화) 7:30pm
All Seats 2,000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_ 특별연주회

특별연주회

여름방학 음악회

문화 | 중극장 8.14.(금) 7:30pm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III - 실내악

문화 | 챔버홀 10.24.(토)~10.25.(일) 7:30pm
All Seats 무료



특별연주회

2020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11.17.(목) 7:30pm
All Seats 2,000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_ 정기연주회

제157회 정기연주회

양탄자 타고 음악여행 Season II [취소]

문화 | 대극장 5.30.(토) 5:00pm
All Seats 2,000원



제158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9.12.(토) 5:00pm
All Seats 2,000원



제159회 정기연주회

Merry Christmas in Love

문화 | 대극장 12.19.(토) 5:00pm
All Seats 2,000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_ 특별연주회

특별연주회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Friendly Concert**

문화 | 대극장 7.25.(토) 5:00pm
All Seats 2,000원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음악회
교과서 음악회

문화 | 중극장 8.21.(금)~8.22.(토) 5:00pm
All Seats 2,000원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11.7.(토)~11.8.(일) 5:00pm
All Seats 무료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0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4월 24일(금), 5월 29일(금), 7월 31일(금),
8월 28일(금), 10월 30일(금), 12월 8일(화)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김준수, 두번째달 '팔도유람' 종료

3월 25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20매)

컨템포러리 국악 그룹 '블랙스트링' 종료

4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에이프만 발레 '안나 카레니나'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종료

5월 23(토)-24일(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연극 '여자만세 2' 종료

5월 28일(목) 오후 3:00,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5월 30일(토), 6월 2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가족극 '우리는 친구다'

7월 3일(금) 오전 10:00, 4일(토)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3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연극 '어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종료

8월 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7월 31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서울발레시어터 '한여름 밤의 꿈' 종료

7월 25일(토)-26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25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챔버페스티벌’

8월 15일(토)-29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회당 선착순 20매)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종료

8월 28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S석 20매)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최우수작
‘토장군을 찾아라’**

9월 3일(목)-4일(금) 10:30, 13:30, 5일(토) 11:00, 1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R석 100매)

연극 ‘결혼’(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

9월 18일(금) 오후 7:30, 19일(토)-20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S석 20매)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콘서트 종료

9월 24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연극 ‘십이야(十二夜)’ 종료

9월 26일(토)-27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6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 내셔널 투어 종료

10월 3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VIP석 40매)

안은미 컴퍼니 ‘A-드래곤’

12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2020 제아음악회

12월 31일(목)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빈소년합창단 2021 신년음악회 종료

2021년 1월 2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종료

2021년 2월 21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 1인 2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고객센터발팀(607-6116)

Busan Cultural Center
VIP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고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학교 총장
 김 군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 J 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원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해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주)선광 대표이사
 윤영기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경현 엘가 대표
 이성임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이진영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영희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충영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진경옥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허 준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현임숙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대극장 좌석 네이밍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1회 무료 (연간)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2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전시,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사용 등은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김홍재(010-3560-2511)



2020

시민 Jazz

부산爵士제

힘내라, 부산!

일시 20.5.22(금) ~ 6.12(금)

매주 금요일 12:20

장소 부산시민회관 광장 야외무대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 다이아몬드 브릿지, 이온트리오,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5.22(금)

• 루즈 네그라, 브이 브라스, 페이지원 5.29(금)

• 폴덴에이지밴드, 잠바OJ 쉐킷, 김민규 트리오 6. 5(금)

• KLAON 클라온, 조아합창단 6.12(금)

※ 우천시 취소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유수정
극본·가사·연출 고선웅
작창·작곡·음악감독 한승석

2020
07.17^{FRI}
-
07.18^{SAT}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금 7:30pm
토 3:00pm

관람료

V석 70,000 원
R석 50,000 원
S석 30,000 원
A석 20,000 원

예매처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인터파크
1544-1555

변강쇠
점
찍고

창극
오
원녀



2020. 4. 21 — 2020. 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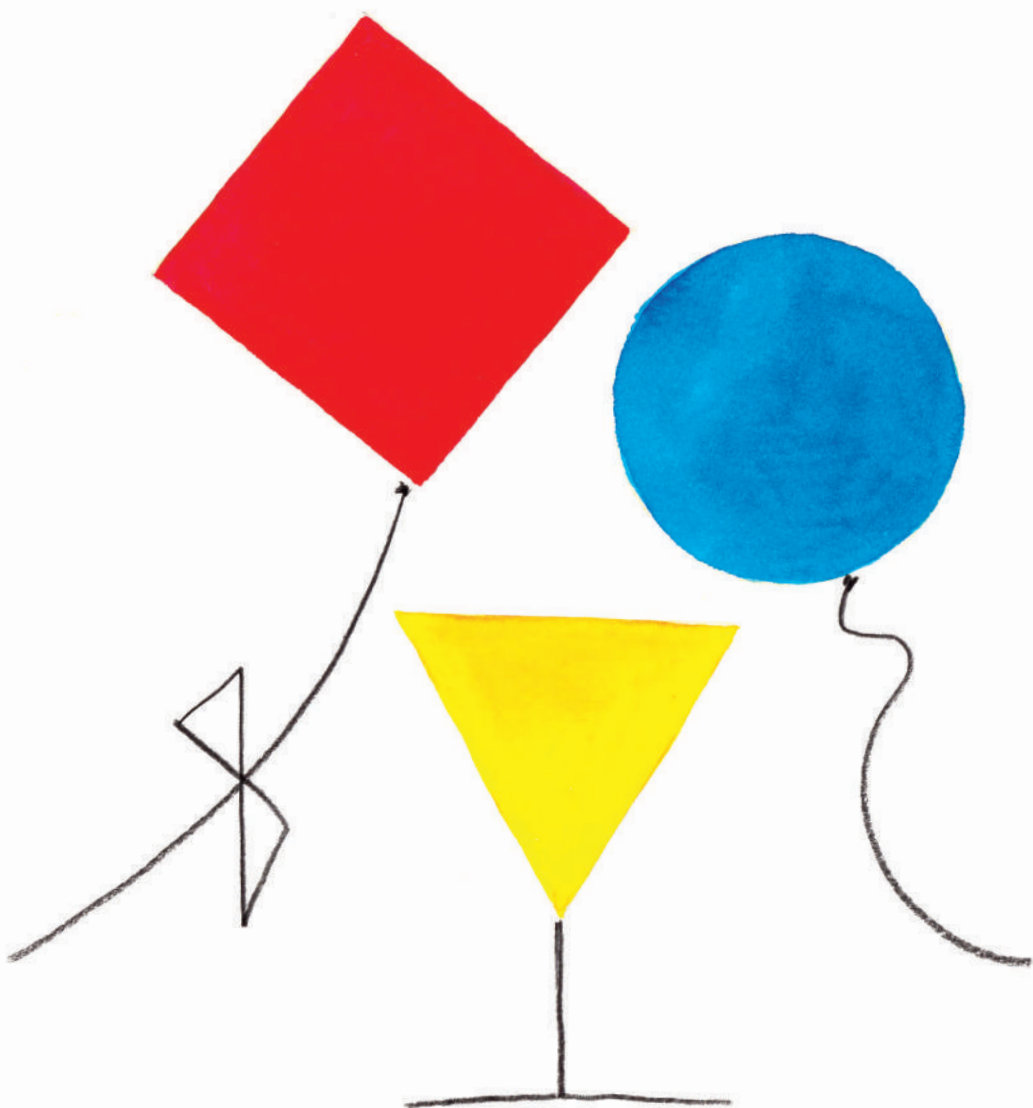
부산시민회관 갤러리 1, 2F

문의처 : 051. 630. 5235
<http://www.bscc.or.kr/citizen/main/>

WELCOME TO MY STUDIO!

ALAN
FLETCHER

주최 | 주관 (재)부산문화회관, KT&G 상상마당 협력 Fletcher Family 후원 부산광역시 동구 협찬 정관장 MALL (正廳) COURTYARD COSMOCOS
Seoul Namdaemun



KT&G 상상마당
20세기 가장 시리즈, 일곱 번째

영국 디자인의 신화, 앨런 플레처 회고전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

(재)부산문화회관



플러스 **무료** 회원 | 혜택 늘려다! 감동을 더하다! 가입 캠페인 EVENT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 회원인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리세요!



●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 가입기간

2020년 3월 2일(월) ~ 6월 30일(화)

● 참여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모바일

● 당첨자 발표

2020년 7월 중, 당첨자 개별공지

● 경품내용

선물1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10만원 상당)
선물2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5만원 상당)
선물3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3만원 상당)
선물4	100명	GS칼텍스 주유 쿠폰(2만원/모바일)
선물5	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모바일)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의 초대> 1년 구독권
선물7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재)부산문화회관

플러스 **무료** 회원 가입신청서

이 름

아 이 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로그인 시 최초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이 메 일

주 소

이벤트 당첨 시 기재해 주신 주소로 경품 발송됩니다.

☐ SMS/이메일 수신동의

플러스무료회원의 혜택인 공연 문자 알림과 뉴스레터 수신을 위하여 SMS/이메일 수신동의는 필수입니다.

☐ 정보제공 활용 동의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재)부산문화회관의 회원 가입 및 공연정보 등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플러스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경품 추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QR코드로 간편가입



COUPON



20% Discount

안경나라(동래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10% Discount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선불카드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프랑키와 친구들

범인을 찾아라



2020.7.1(수)-8.2(일)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오전 11시(월요일 공연없음) 전석 : 20,000원

- 주최 : 부산문화회관Cl 티켓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 문의 및 예매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1번)www.bscc.or.kr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 단체 10인 이상 65% 할인(전화예매만 가능)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0. 6.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34번길 4
1588-2757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 | |
|------------|-----------------|
| ① 612-9566 | ⑪ 070-755-2188 |
| ② 624-9776 | ⑫ 611-3973 |
| ③ 626-7111 | ⑬ 908-1111 |
| ④ 611-4241 | ⑭ 625-9402 |
| ⑤ 626-4448 | ⑮ 626-2292 |
| ⑥ 622-7412 | ⑯ 010-3996-6498 |
| ⑦ 611-3589 | ⑰ 623-0772 |
| ⑧ 628-8009 | ⑱ 628-3832 |
| ⑨ 621-7040 | ⑲ 714-3559 |
| ⑩ 621-5788 | |

Music & Art / etc.

- | |
|----------------|
| ① 868-3311 |
| ② 868-3311 |
| ③ 625-7275 |
| ④ 628-2592 |
| ⑤ 622-1456 |
| ⑥ 621-6669 |
| ⑦ 626-7900 |
| ⑧ 080-337-3370 |
| ⑨ 622-9722 |
| ⑩ 625-8704 |

COUPON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정식 1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대연스포츠타워 킹스볼링장 1층
051)714-3559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안경나라(동래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08번길 5
051)505-8987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우 표

받는 사람

이 름

주 소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개선해야 할 점은?



2020

06

JUNE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그 사이 봄은
속절없이 가버렸지만
다시 오신 당신이
우리들의 봄입니다.

더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